



시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였다(마 5:5). 온유한 자란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코자 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한 악의에 길이 잠는 것”이라고 했다(갈반). 온유(溫柔, neek ness)란 외모적인 것보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사람에 대한 선의(vincent)를 뜻한다. 온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다(마11:29).

중국의 유명한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서 도를 배웠다. 상창이 세상을 떠날 때쯤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했다. 스승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어 보이고는 “내 이(치)야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다시 스승은 “내 혀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노자는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스승은 이것이 가르침이라고 하였고, 제자는 큰 절을 하고 물러나왔다. 스승의 가르침은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이(치)야는 단단하고 강하며 딱딱한 것을 부수기도 하지만 결국 부러지고 깨어지고 빠져나가서 없어지고 만다. 권력, 무력, 폭력은 강한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고 부러지고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허처럼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는다.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유의 참된 의미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순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부드럽지 않고 강박하고 냉정하고 몰인정한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강하고 냉정하고 사나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닌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유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배에게 겸손하고 존경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 남을 친절히 섬길 줄 아는 사람,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매를 맞고도 잘 참고 견디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돌보아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결국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하였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왕이 된다.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며 한 단체나 기관을 맡아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온유함은 겸손의 선물이며 교만은 불순종과 죄의 자식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인물인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이들은 잘 가꾸어진 정원의 연못에 있는 물고기잡이에 내기를 걸었다. 제일 먼저 히틀러가 권총을 뽑아 발사했다. 제일 순침과 강한 방법처럼 보였지만 탄환은 물고기를 맞추지 못했다. 히틀러의 실패를 본 무솔리니는 연못에 직접 들어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속에서는 물고기의 동작이 사람보다 민첩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처칠의 차례가 왔다. 처칠은 연못의 물을 모두 퍼냈다. 물고기는 당연히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한 처칠에게 잡혔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어떤가? 강자였던 히틀러, 무솔리니에 대해서 사후에도 단죄의 소리가 높았지만 처칠은 국가유공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런던 피커딜리 공원에 동상이 세워졌다.

부드러운 가죽과 예리한 면도칼 어떤 것이 강할까? 면도칼이 강한 것 같지만 면도날을 세우려면 보드보듯한 가죽에 문질러야 한다. 부드러운 가죽이 강한 면도날을 마모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목사, 온유한 장로, 온유한 권사, 온유한 집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성공, 큰 축복을 차지하기 바란다.

세속주의, 소비주의, 대중문화 선정성과 폭력이 위협 요신

퓨리서치, 지구촌 복음주의교회 지도자 2,196명 대상 설문조사

복음주의적 개신교는 그 역사적 뿌리를 북유럽이나 북미에 두고 있지만 오늘날 지구촌 기독교를 대표하는 현상이 돼버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10년에는 유럽이나 북미에만 거의 90% 이상 정도로 8천만 명의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2010년)에는 적어도 2억6천만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유럽이나 북미가 아닌 지구촌 특히 남반구에 살고 있다. 즉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지역, 중동,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전 지역이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의 온상이 돼버린 것이다.

지난 한 세기동안 지구촌에는 복음주의 운동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활짝 개화했다. 아프리카에서의 성공회가, 러시아에서 침례교가, 중국에서 독립적인 가정교회가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펜타코스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수많은 질문들을 제기한다. 과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 할 수 있을까? 남반구 진영의 교회 지도자들은 북반구 진영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견주어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 또한 복음주의적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대상들은 무엇일까?

작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선교대회 즉 제 3차 로잔선교대회는 지구촌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166여개 국가에서 온 4,500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대회였다. 따라서 퓨리서치는 템플턴 재단의 도움으로 동 대회에 참가한 지도자들 중 2,196명을 대상으로 웹과 설문지를 통해 과연 복음주의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와 기독교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대대적이고 심층적인 설문을 벌였다(Global Survey of Evangelical Protestant Leaders).



일반적으로, 지구촌 남반구에 사는 복음주의적 교회 지도자들은 향후 자신들의 나라에서 복음주의가 현재보다는 나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반면 유럽, 북

은 2,196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만이 오직 하나이며 참된 진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나

제기하는 복음주의적 기독교의 위협 요소들은 무엇일까?

1. 세속주의 영향(71%)
2. 소비주의
3. 대중문화에 나타난 선정성과 폭력

이 아직까지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 진화론 수용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다. 47%는 진화론을 배격하고 있지만 41%는 유신론적 진화론

북반구 비해 남반구 교회성장 영향력 유력 불구 리더십은 못 미쳐
진화론 수용에 입장 차...47% 진화론 배격, 41% 유신론적 진화론

미,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즉 북반구 지도자들은 약간의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남반구의 지도자들 중 71%는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더욱 더 복음주의가 성장하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북반구의 지도자들은 44%만이 그렇다고 하며, 33%는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남반구의 지도자들은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이 삶에 있어서도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58%)으로 기대하는 반면, 북반구는 오히려 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66%)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별히 미국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게 된다고 82%가 바라볼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설문에 참가한 166여개 국가에서

사회 쟁점들에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실제로, 90% 이상이 낙태는 잘못된 것이며, 84%는 동성애를 반대하며 그리고 남자가 결혼이나 가정에서 머리라고 79%가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98%의 리더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남반구의 리더들이 북반구에 비해 성경에 훨씬 보수적이다. 실제로 남반구 지도자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믿는 비율이 북반구보다는 높고(58% vs. 40%), 낙태는 항상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며(59% vs. 28%),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해야한다고 하며(67% vs. 39%) 그리고 음주는 좋은 크리스천이 돼나가는 데 어울리지 않는 다(75% vs. 23%)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구촌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4. 이슬람의 영향(47%) 5. 복음주의자들 간의 신학적 입장 차이(30%) 6.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사치와 허영(30%) 7.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26%)

이외에도 이번 설문에서는 다음 과같은 중요한 사실들이 발견됐다:

- 44%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임할 것으로 믿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213) 383-0200 (대 표) (323) 665-0009 (광고국)
Fax: (213) 380-5951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2011 Fall Semester
신·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2011년 8월22일~12월2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Athletic Mission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Christian Leadership
---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원격 교육 강의 :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혹은 J-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 E-mail: usa@midwest.edu

한국의 경기도 안양소재의 감멜산금식기도원 담임인
조성근목사가 LA에서 기도성회를 인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미주 감멜산 기도성회

강사_ **조성근목사**

- 감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담임
-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 GST대표
- KWMA 문명이사
- 흥신대학교(Th.M/Th.D.cand)
- 미국 ORU(D.Min)

일시 1차 6월 28일(화) ~ 7월 2일(토)
2차 7월 4일(월) ~ 7월 7일(목)
매일 오후 7시 부터 9시
* 주일은 기도성회를 하지 않습니다.

장소 3407 W 6th St. Suite 800
Los Angeles CA 90020(로얄빌딩)
집회문의(213)514-0039

주최 감멜산금식기도원
www.galmelsan.or.kr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어
복음
전도
신문
입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단기선교 앞서 단기선교사를 먼저 양성하라!

GP선교회, 교회에서 단기선교사를 양성하는 노하우 소개



단기선교는 통상적으로 2주에서 2년, 또는 그 이상 일정 기간 동안 타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단기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 단기사역자는 자신의 삶과 능력, 그리고 가진 것을 일정 기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한다. 단기선교사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혹은 2년간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미리 기간을 정하고 사역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단기선교사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단기선교사의 자질

1) 동기가 올바르지 점검한다.
나는 왜 단기선교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타당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동기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히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선교지에서 어려운

심이 있어야 한다. 낮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친화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배 선교사와 현지 그리스도인과의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잘 맺어나가야 한다.
5)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선교지에서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또한 가고자 하는 선교지가 정해지면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고 가는 것이 좋다.
3) 지역교회에서 훈련을 받는다.
보통 선교회나 기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에서 영성훈련과 제자 양육

선교여행을 통해 타문화에 자신을 노출시켜보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점검한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관심지역에 가보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경험자에게서 배운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관심지역의 경험자를 만나 그곳의 사정을 듣는 것도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직접 경험을 들으면서 간접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후원자 개발을 해야 한다.
단기선교사는 대학이나 신학교를 막 졸업해 1~2년 동안 사역하려는 청년들이나 평신도 선교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직 인식이 낮아 후원개발이 쉽지 않다. 선교단체 그리고 파송교회와 충분한 교제를 갖는 것이 좋다. 또한 많은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는 일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3. 단기선교사역의 기회

단기선교사로 사역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동참할 것을 권한다.

사역자 정체성 확인, 전문성과 섬김, 관계형성 등 자질 점검 영성, 언어, 훈련, 타문화 체험, 후원자 모집 등 준비 철저히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내가 왜 선교지에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이제는 다양한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의 내용도 다양해야 하며 전문성도 갖추어야 할 시기이다. 특히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없는 창의적 접근지역에 유학이나 직장을 통한 사역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단기선교사는 사역지에서 단독으로 사역할 수 없다. 대부분 장기선교사와 협력해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기선교사는 그들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장기선교사와 협력할 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4) 관계 형성을 잘해야 한다.
현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2. 단기선교사로의 준비

1) 개인의 영성에 힘쓴다.
선교지에서는 어느 누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특히 기도, Q.T, 성경공부 등 영적인 부분은 대부분 스스로 관리해야 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선교지에서는 더욱 할 수 없다.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Q.T훈련을 해야 한다. 철저한 자기 훈련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2) 기본언어를 익힌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국제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영어는 기본적

훈련 등 교회 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한다. 또한 특정 사역, 즉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음악 사역, 캠퍼스 전도 등의 경험을 넓힌다. 선교단체는 영성 훈련단체가 아니며 영성훈련에 대한 교육 또한 미미하기 때문이다.

4)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다.
지역교회에서 영성과 제자 양육을 하고 있다면 단기선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은 선교단체에서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교지에 대한 정보와 문화를 연구하고 일반 사역을 통해 지식을 쌓아둔다면 나중에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단기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OM이나 YMCA 등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에 참가해 기본 소양을 배우고 가능하면 훈련받은 단체에서 파송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타 문화권에서 경험을 해 본다.

다. 장기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들이 많기 때문이다. MK교사, 주일학교 사역, 청소년 사역, 행정, 의료, 음악, 컴퓨터, 교사, 전기 기술자, 복음 전도자, 교회개혁, 전문인 사역자,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의 조력자, 전문 직업이나 전공을 통한 특수직 종사, 기타 전문 분야 등이 있다. 장기선교사가 시간적, 환경적 제한으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을 도울 수 있다.

누구든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한 순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중에 한 부분을 드렸을 때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확신한다.

세속주의, 소비주의, 대중문화 선정성과 폭력이 위협 요소!

(2면에서 계속)

•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펜타코스트 크리스천(92%), 가톨릭(76%) 그리고 유대인들(75%)에게 우호적이다.

• 따라서 팔레스타인들보다는(11%) 이스라엘인(34%)에게 동정적이며, 39%만이 양국 간의 갈등을 공평하게 바라보고 있다.

• 73%의 지도자들에게 전도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종교별로 순위를 매기면, 무슬림들(59%), 불교인들(39%), 힌두교도들(39%), 유대인들(27%), 비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26%) 그리고 가톨릭교인들(20%)이다.

• 79%는 남자가 결혼이나 가정에서 종교적 지도자이며,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한다고(53%) 본다. 그러나 63%는 여자가 반드시 가정에서 자녀들만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따라서 75%는 여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 지구촌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84%는 종교적 지도자는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야한다고 보며, 56%는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이나 도덕적인 원리들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사회에 드러내야 한다고 바라본다.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천 호흡없는 생명체 불과

(1면에서 계속)

여기서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항상 마음속에 눈앞에 그분을 두어야 함을 가리킨다. 한 마디로 우리의 삶은 그분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의 야망은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법사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like -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요일2:6,GNB)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는 신약성경에서 수십 가지 상이한 신학을 찾아내는 풍조가 있다. 그러나 그런 풍조와는 반대로 위의 말씀들은 신기하게 하나로 의견이 모아진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하신다는 개념이다. 영원한 영광과 최후의 회심과 지속적인 성화와 최후의 영화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든 부각되는 주제는 동일하다. 각 단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 혹은 그분의 '형상'이 언급된다. 완성된 구원이란 바로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 원한다면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독교의 거룩한 길은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요컨대 비밀은 '모방'(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함)이 아니라 '재생산'(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생산하심)이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돼가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부족하나마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토록 소원하는 바인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이르게 될 것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1년 가을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 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 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 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퀵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6시
- 3 입 학 시 험 : 2011년 9월 10일(토) 오전 11시, 면접 :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1년 9월 12일(월) - 9월 14일(수) 오후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사람은 “에노쉬”란 히브리어로 깨지기 쉽고 병들고 부패하고 낡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 인자는 “엔아담 즉 흙의 아들”로서 한줌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를 의미한다. 우주에 속한 한줌 흙과 같은 그 인간을 5절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노래한다. 개역번역에서는 감히 “하나님이

라고 번역하기가 두려워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그 광활하고 웅대하고 끝이 없는 우주 속에서 먼지 한 톨 같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그 어마 어마한 별들, 은하계에 널려있는 크고 아름다운 별들보다 하나님은 왜 이 지구에 있는 사람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 우주 속에서 지구 하나가 없어져도 이 우주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우주 속에서 그토록 보잘 것

없는 지구 안에도 60억이 넘는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지구조차 병들게 해서 망가트리고 있는 사람 그 무가치한 인간, 그를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그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나를 사랑해야 될 무슨 의무라도 있다는 말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지구상에는 지금 10초만에 45명이 태어나고 17명이 죽어가고 일 년이면 1억4천만 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5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뇌혈관 질환 하나만으로도 440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교통사고 하나만으로도 150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일 년이면 3천만 명이 넘는다. 북한과 후진국 도처에서 굶어죽고 얼어 죽는 사

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도 저 죽어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머지않아 죽어버리고 그러면 씩어저 한 줌 흙이 되고 말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왜 귀하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보셨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그러나 너무도 간단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과 우주의 대 자연을 더럽히고 망가트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굳이 내려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부족해도, 아니 아직 거룩하지 못해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계속되던 시기에 영국의 폐속선 한 척이 미국을 향해 영국의 한 항공기를 띄웠다. 그 횡단은 무척 위험한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은밀한 명령들이 그 폐속선 선장에게 내려졌다. 그 것은, “이 항로를 계속 유지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항로를 바꾸지 말라.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무전을 쳐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출항한 지 며칠 후에 적의 순양함 한 척이 눈앞에 나타났다. 폐속선 선장은 특별 암호로 급히 무전을 쳤다.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자 어디서 왔는지 똑같은 회신이 왔다. “항로를 계속 유지하라. 내가 옆에 있다.”

그러나 그 배는 보이지 않았다. 폐속선 선장은 내심 불안했지만 그 무전의 내용만을 믿고 항로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사

히 미국의 어느 항구로 도착했다. 얼마 후, 영국의 또 다른 한 척의 커다란 군 잠수함이 같은 항구로 들어왔다. 그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도움을 필요로 하면 돕고자 줄곧 옆에서 그림자처럼 숨어서 따라왔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가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의 손길은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림자처럼 숨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천만금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아니라 할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푸/ 른/ 초/ 장

이정익 목사 (신촌성결교회 담임)



7-8월은 한 여름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한기에 속합니다. 즉 영적 취약기입니다. 기도하기에 게을러지고 성경을 안 읽게 되고 휴가철로 모두 마음의 상태가 산란해지는 영적 취약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예수 믿어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어린이가 수준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와 목적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매주일 예배참석 하고 봉사하는 것이 제자입니까. 11조 헌금하고 구역예배 잘 드리는 것이 제자입니까. 그것도 제자가 하는 일이라는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거나 목표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

합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11장까지는 전반부로 주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장

까지는 실제적인 문제들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 예수 안에 들어와 입교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때로 장로도 됩니다. 그렇게 직분이 올라갈 때마다 신앙이 덩달아 성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하고 직분에 상응하도록 영적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내 안에서 자생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중심입니다. 그

삶의 내용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

“세상을 거스리는 삶” 로마서 12장 1-2절

라.” 신앙인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신앙의 분명화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은 신앙의 분명화입니다. 오늘의 특징 중 하나는 불분명, 불투명, 불확실입니다. 오늘은 말도 태도도 행동도 언어도 다 불투명합니다. 신앙도 흐릿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입니다. “전능하시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그 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심히 막연합니다. 그 초점이 흐려져 있습니

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일신관이 흔들리고 중심이나 목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다원주의의 영향일 것입니다. 오늘은 모두 이 영향에 침몰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삶 내용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고집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삶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안한 삶입니다. 평안은 굳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거기다 오늘은 다종교시대입니다. 모든 종교가 섞여 살아갑니다. 초점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던 부분입니다. 오늘 일부 신학자들 입에서도 타 종교

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물질 풍조

이 물질의 풍조가 또 거센바다. 오늘은 매사를 돈으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고상하게 보이고 귀티가 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물질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무시당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비굴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마침내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질의 물결이 너무나 거센바다. 그래서 이 물결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뜻을 보면 이 물질 때문에 삼촌을 버립니다. 부모 없는 것을 길러주고 양육하여 아들이 될 길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때문에 삼촌을 가까이 버리고 소동으로 갑니다. 인간은 물질 앞에서 이성도 도리도 잃기 쉽습니다.

오늘도 이 풍조에 밀려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땅에 이방종교의 막대한 장학금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그냥 주겠습니까. 신앙의 개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

입니다. 그런데도 장학금을 받고 유학가기 위해서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 전향을 하고 장학금을 받아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종교의 자본금이 들어와 쌀 이자로 사업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천만금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아니라 할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세속문화

오늘 세속물결이 대단합니다. 오늘 문화라는 말을 쓰고 이 세속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는 말이 문화이지 대부분은 성적 문화입니다. 오늘 매사가 성적입니다. 옷차림도, 영상도, 글도, 연극도, 문화도, 거리풍경도 다 성적인 자극을 주는 문화입니다. 이성 우리 주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금방 취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흥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공기 속에 이 성적 풍조의 유전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누구든 매연을 마시고 살아 가듯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이 성적 문화의 풍조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말이 문화이지 성적풍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손쉽게 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비디오로 각종 영상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신앙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적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풍조의 물결에 당당하게 맞서거나 거슬러 나아가길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6면으로 계속)

글을 쓰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목회자가 글을 쓰면 목회도 달라진다. 목회자와 성도라면 전문적인 문인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다 시인이 되고 에세이스트가 되어야 한다.

영혼의 글쓰기

이영령 교수 추천



“이 책은 기독교계의 하나의 문학적 충격과 파문으로 다가올 것이며, 지성을 넘어서는 영성의 글쓰기, 이상을 넘어서는 영혼의 글쓰기라는 새로운 마슬을 우리 사회에 던질 것이다.” - 0102 전근호(성서학)

목회자여, 한 손에는 책을 한 손에는 펜을 들어라!

웅변형과 문사형 목회자의 조화론 통하여 관동으로 신도사 다형교회론 이론 소장석목사 그가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글쓰기의 실체적 노하우와 주옥같은 문헌의 보고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글쓰기의 모든 내용이 담긴 책

한빛의 소년지 소장석목사

영국 1급 문학박사로 동양대학 원로 교수로 30년 이상 활동하시며, 내신과 교양을 겸비한 신학자이자 ‘영혼의 글쓰기’를 주제로 10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200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3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3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3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3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3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3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3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3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3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3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4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4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4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4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4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4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4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4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4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4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5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5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5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5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5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5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5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5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5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5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6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6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6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6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6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6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6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6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6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6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7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7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7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7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7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7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7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7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7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7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8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8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8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8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8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8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8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8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8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8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9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9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9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9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9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9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9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9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9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9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0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0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0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0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0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0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0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0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0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0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1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1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1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1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1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1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1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1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1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1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2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2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2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2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2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2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2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2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2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2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3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3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3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3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3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3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3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3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3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3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4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4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4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4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4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4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4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4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4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4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5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5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5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5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5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5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5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5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5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5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6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6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6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6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6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6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6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6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6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6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7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7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7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7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7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7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7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7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7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7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8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8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8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8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8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8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8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8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8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8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9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9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9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9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9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9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9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9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9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19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0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0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0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0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0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0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0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0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0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0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1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1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1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1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1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1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1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1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1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1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2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2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2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2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2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2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2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2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2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2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3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3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3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3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3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3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3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3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3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3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4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4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4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4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4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4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4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4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4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4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5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5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5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5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5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5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5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5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5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5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6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6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6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6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6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6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6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6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6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6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7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7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7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7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7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7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7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7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7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7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8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8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8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8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8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8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8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8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8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8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9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9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9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9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9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9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9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9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9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29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0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0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0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0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0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0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0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0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0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0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1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1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1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1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1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1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1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1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1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1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2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2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2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2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2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2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2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2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2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2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3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3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3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3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3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3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3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3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3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3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4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4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4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4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4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4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4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4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4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4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5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5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5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5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5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5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5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5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5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5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6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6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6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6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6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6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6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6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6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6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7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7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7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7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7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7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7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7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7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7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8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8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8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8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8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8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8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8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8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8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9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9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9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9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9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9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9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9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9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39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0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0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0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0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0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0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0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0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0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0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1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1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1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1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1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1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1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17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18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19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20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21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22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23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24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25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26년 기독교총연합회 영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2427년

교육칼럼

다음 세대는 문화 선교의 대상



송규식 목사 | 그레이스웨이브교회

이미 먼저 쓴 글에서 다음 세대를 땅 끝으로 규정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계층적 또는 세대 간의 단절된 문화적 차이에 의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을 선교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대상을 정하고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하듯이 다음 세대들의 언어와 문화를 모르고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언어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문화란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언어란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콘텐츠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Silent Exodus'의 원인을 이미 밝힌 바대로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교회가 마치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이 벗어 버리고 싶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화는 옷과 같아서 그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게 호흡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문화란 그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갈 수 있도록 명석은 깎아 주어야 할 책임이 교회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음 세대를 하나의 선교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그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심리발달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서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위하여 대화를 시작하면 대체로 부모가 이야기를 주도합니다. 결국 아이는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또 부모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부모에 의한 상처를 갖게 되는데 부모와 대화를 피할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는 친구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해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끝까지 들어주고 필요 채워줘야 사이버공간서 탈출하도록 캠프 등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물론 비싼 옷이나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사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볼 때, 별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여러 가지 예능 레슨 등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이나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 형제나 자매가 별로 없습니다. 더러는 독자이거나 아니면 남매, 자매, 형제 등 단 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을 현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 고독을 느낀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 고독을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적인 짝 찾기로 해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현상 중의 하나가 포스트모더니즘과 극단적 개인주의를 말할 수 있는데 피지컬 월드(Physical World) 안에서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사이버 월드(Cyber World)에서 페이스북(Face Book)이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스론과 모든 사람이 모든 개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뉴에이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알게 모르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이나 아닌 또 다른 슈퍼 파워(Super Power)를 가진 어떤 존재에 이끌려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필요는 컴퓨터나 태블릿(Tablet)이나 스마트폰(Smart Phone)이 아니라 그들이 숨쉬고 살아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요, 자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 갇혀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전혀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도 태블릿도 스마트폰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그것들을 지배해야지 결코 그것들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면 중독환자와 같이 되고 맙니다. 사이버중독, 스마트폰중독, 게임중독, 스크린 중독 등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인성이 병들게 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운동 또는 댄스 그리고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또는 뮤지컬 등 활동을 권장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와 같은 건전한 활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가상적인 체험 이상의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에 아주 귀중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자주 캠핑을 하십시오. 자연과 가까이 할수록 자녀들의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괴악한 범죄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상적인 사이버공간에서 좋지 않은 게임 등을 통해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던 습관이 실제적 삶에서 판단력이 없는 혼란 상태로 빠져 들어가 혐악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부모가 협력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디.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탁상공론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협력을 잘 안 합니다. 내 자식 만을 위해서라면 열정 그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무엇 이든지 다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까지 위해서 무엇인가 함께 하려고 하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세상, 혼자서는 결코 살지 못합니다. 사단은 세상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친구를 값 비싸게 사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학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역자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자녀들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훌륭한 선생님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결코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일, 인물을 키우는 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세워 무너져 가는 미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를 재건하고 세계적인 인물들로 키우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투자라고 확신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교회 형편과 자녀들의 연령분포에 따라 정확한 자문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과 교회 정착을 원한다면 문화선교적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담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연락처: (714)699-0210

연락처: (714)699-0210

컬 등 활동을 권장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와 같은 건전한 활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가상적인 체험 이상의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에 아주 귀중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자주 캠핑을 하십시오. 자연과 가까이 할수록 자녀들의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괴악한 범죄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상적인 사이버공간에서 좋지 않은 게임 등을 통해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던 습관이 실제적 삶에서 판단력이 없는 혼란 상태로 빠져 들어가 혐악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부모가 협력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디.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탁상공론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협력을 잘 안 합니다. 내 자식 만을 위해서라면 열정 그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무엇 이든지 다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까지 위해서 무엇인가 함께 하려고 하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세상, 혼자서는 결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6.25전쟁의 전후 상황과 공산주의가 거의 한국을 다 집어 삼켰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되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1950년 6월25일 비가 촉촉이 내리는 조운한 주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압호명 "폭풍"을 명령해서 일제히 38선 남쪽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해방 후 5년간 적화 통일 의 야망을 불태우며 전쟁준비를 끝낸 김일성 공산군은 소련제 탱크와 야전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6.25직전까지 한국의 정치가들과 군수뇌부인 국가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아무런 무기가 전쟁준비도 안 해놓고 있었습니디.

그러면서도 전쟁이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압록강에서 먹고 다 큰소나 치고 호연장담했습니다. 그 당시 통계를 보면 한국군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탱크나 자주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졌습니디.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점심은 서울에서 저녁은 부산에서 먹는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형편없이 파죽지세로 밀렸습니다. 경비대 밖에 안 되는 군대를 출전시켜 응전 했으나 우리는 호랑이 앞에 강아지 풀이었습니다. 이제 나라는 풍전등화로 완전히 공산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공산당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밀리면 완전히 나라가 공산화 된다는 비극의 때에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그들의 죄악을 회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 등 연합군이 승리

하며 이 민족에게 한번 기회를 더 달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950년 6월 26일 한 번도 합의가 된 적이 없었던 유엔파병이 허락되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의 유엔군대가 한국전에 참전하였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지휘로 미 해군 함정 261척과 미7사단 기동부대 75,000명이 인천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 지휘관 회의에서 성공률이 5000:1이라고 반대했으나 맥아더 장군의 확신으로 상륙작전을 시도하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9월28일에 수도 서울을 수복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낙동강전선에서 한국군과 미8군이 반격하여 10월1일에 38선을 넘어 북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이 만들어 저서 한국을 구한 것은 결코 사람이 한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디. 우리는 미국과 UN군의 참전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조국을 위기에서 구한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6.25전쟁은 피로 전 국토를 물들이고 아무런 성과나 결과도 없이 전쟁 3년1개월 만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8시를 기해 휴전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상태에서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참전기념비에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생전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일면식도 없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 희생했던 자랑스런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25 당시 위계사령관 후임으로 부임한 린치웨이 장군은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시 UN군과 함께 반격하는데 힘썼던 장군인데 미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우리는 한국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맹국한국보다도 우리의 자주독립과 생존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자유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4시간 영리

뉴욕코타 스텝가게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디

맨하탄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앞뒤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배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태권도, 검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sworld.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디.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데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01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BM MOVEMENT

< 월 간 > 미주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nlovely@yahoo.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디.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66
E mail :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4]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마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브라후이(BRAHUI)



파키스탄의 2백 30만 브라후이인들은 켈라트(KELAT)에 거주한다. 약 3만 평방 마일의 지역이 사라완(SARAWAN) 고지와 카키(KACCI) 저지대 평원으로 나뉜다. 이 지역은 다시 술라이만(SULAIMAN)과 키르타르(KIRTHAR) 산지 그리고 80마일 길이의 볼란 길(BOLAN PASS)로 나뉘어진다. 아프가니스탄의 남부지방과 이란에도 작은 브라후이 집단이 있다.

브라후이인들은 1600년대에 권력을 잡기 위해 힌두왕조를 전복시켰으며 1700년대 나시르 칸(NASIR KHAN) 시대에 그 절정에 달했다. 오늘날 브라후이인들은 29개 부족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8부족이 브라후이의 진짜 핵심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삶의 모습
오랫동안 대부분의 브라후이인들은 이들의 가족을 위해 적당한 기온과 비, 목초지를 찾아 고지대와 저지대 사이를 이동하는 유목민이었다. 출고 일음이 어는 겨울에는 평야에서 살고 2월이나 3월에 양들이 태어난 후 다시 산지로 돌아갔다. 브라후이 유목민들의 숫자는 과거 백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왔으며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완전히 마을에 정착했고 지하수를 이용해 관개하고 여러 가지 현찰 곡물을 기른다. 행정관서 상업 중심지들이 있는 많은 마을들이 있지만 연중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다.

브라후이 양치기들은 가사 일을 돕기 위해 칼크(KHALKS)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각 칼크는 상주하면서 일하는 직업적인 한명의 양치기와 한 무리의 양떼로 구성된다. 이 상주 양치기(RESIDENT SHEPHERD)는 양을 500마리까지 담당한다. 이로 인해 남자들이 밀수확을 위한 마을농장으로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후이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 상주 양치기는 남자들을 시켜 가족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다른 브라후이들과 야영지의 위치나 양떼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칼크로 인해 브라후이인들은 전문적인 양치기가 됐고 양의 수가 5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룹을 나누어 새로운 칼크를 형성하기 위한 천막집을 만들어 이동한다.

결혼은 가족 내에서 종대로 이루어진다. 가끔 친척이 아닌 사랑하는 두 사람의 희망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쪽의 사촌과 결혼하기를 바란다. 남자들은 경배 때문에 이 관습이 제한되곤 한다. 이혼은 브라후이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드물다. 전형적인 가정에서는 결혼한 아들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산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형제들은 장자의 통솔아래 하나의 재산을 가지고 함께 산다. 부족은 브라후이족의 정치적인 기본단위이다. 부족들은 부자승계(PATRI LINEAL DESCENT)와 정치적 연합에 그들의 기초를 두고 있다.

신앙
대부분의 브라후이인들은 수니 무슬림들이다. 이들은 신앙심이 강하고 이슬람의 다섯 가지 의무(기도, 금식, 자선, "알라"는 유일신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라는 확신, 메카로의 순례여행)에 충실하다.

필요한 것들
현재 두 선교단체가 이란의 브라후이인들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으나 이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매우 적다. 중보기도와 추가의 복음적인 자료들, 그리고 이들의 거친 유목민적인 생활양식에 가까이 적응해 이들 사이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국제로잔복음화운동 "케이프타운 서약 확산 통해 복음화 지원"

국제로잔복음화운동(로잔운동·총재 더그 버드셀)이 지난해 10월 3차 로잔대회에서 작성된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로잔운동은 지난달 20-2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고든칼리지에서 국제로잔지도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10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도자회의에는 전 세계 140명 리더들이 참석해 로잔운동의 방향과 체제 보강을 논의했다.

로잔운동이 밝힌 로드맵의 기본 뼈대는 케이프타운 서약이다. 복음주의와 관련된 전 세계적 선언이라 할 수 있는 '로잔언약'(1974)을 계승하면서도 그리스도 중심, 성경에 기초한 선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린지 브라운 국제총무는 "케이프타운 서약은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며 "이를 중심으로 복음의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더그 버드셀 총재는 "2012년부터 케이프타운 서약에 따른 복음주의의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세계 복음화의 목표 속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직 인선도 실시해 이사회 램 기두말 부의장을 의장으로, 3차 로잔대회 프로그램 담당 그레이스 매튜를 부의장으로 각각 지명했다. 2명 모두 인도 출신 지도자들이다.

"가야바는 실존 인물" ... 친척 이름 새겨진 납골함 진품 확인

성경 속 인물의 실제 존재 여부를 밝혀 줄 석재 납골함의 진위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학자들은 최근 유대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야바(Caiaphas)'의 친척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2000년 된 석재 납골함이 진짜라고 확인했다고 AP통신이 이스라엘 문화재 당국의 말을 인용해 29일 전했다.

이는 가야바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가야바는 신약 성서에서 예수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줘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로 묘사된다. 유골을 저장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이 납골함은 양식화된 꽃무늬로 장식돼 있으며 위쪽에는 가야바 집안의 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스라엘 문화재 당국은 이 납골함이 3년 전 도굴범으로부터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납골함이 통제된 환경 아래의 고고학적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실험실에서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스라엘 문화재 당국은 고성능 현미경을 이용, 납골함과 글씨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했고 조사에 참가한 2명의 학자는 납골함에 적힌 글씨가 진짜라고 판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성경과 관련된 문화재들이 위조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라고 적힌 유사한 납골함이 위조사기 여부를 놓고 재판에 부쳐져 있다.

수정교회 이사회, 창립자 슬러 목사 제명

미국의 초대교회 수정교회(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 소재) 창립자인 로버트 H. 슬러 목사(84)가 이사회로부터 제명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슬러 목사의 아들이자 전 수정교회 담임인 로버트 A. 슬러 목사는 그의 아버지가 이사회 확대를 제안했다가 오히려 이사회에 의해 제명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는 새로운 이사회를 추가하기 원했지만 그들(이사회)은 자신들이 영향력을 잃을지도 모

미국인 73% "우리의 역사와 헌법은 특별하다"

미국은 특별하다는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가 아직도 미국인들 가운데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1830년대 프랑스 사회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Tocqueville)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독특한 건국 배경과 역사 발전 과정, 정치 제도 등을 가진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국가라는 미국인들의 민족의식을 가리킨다.

7월 4일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갤럽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3%는 이 예외주의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한 이들은 세계가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이 국제 안보에 있어 수호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주의가 점점 개인적인 신념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도 이들 가운데 공유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예전보다 최근 더 자주 미국의 역사와 헌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인들이 본질적인 것에서 더욱 의미를 찾게 됐다는 분석이다.

로마 교황청, 지난해 약 155억 흑자

로마 교황청이 지난해 143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지난 2일 추가 경 회의를 보고했다. 교황청은 2007년 이후 지난 3년 간 적자에 시달린 바 있다. 전체 수입은 3억 5610만 달러였다.

그러나 전체 수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현금 한 해 전보다 18% 정도 줄어 9360만 달러에 그쳤다. 교회청 대변인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P 통신 등은 "교황청 안팎에서 유럽 신부들의 성추문 때문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교황청은 관광 수입(3255만 달러)과 금융활동에 따른 수익(7865만 달러)에 힘입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흑자를 냈다. 교황청은 관광객들에게 박물관 입장료를 받고 기념품을 판매한다. 수입은 선교 목적을 위한 방송사 및 신문사 운영을 비롯해, 바티칸 건축물의 유지와 보수, 성직자와 일반인 등 모두 19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에 쓰인다.

한국 핸드폰 빌려가세요 702.812.4770 Kim Wray

눈, 코, 귀,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손에는 전화기가 있으니 만사해결!

임대료 \$3.00 a day / \$21.00/wk

공짜! 39c a min

- 가격은 인건공임의 50% 수준
- 고급 핸드폰 제공
- 장기 - 스페셜 할인
- 미국 어디나 무료 배달

성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www.lifebook.co.kr

TEL: 213.382.4538 Fax: (213)382-1154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8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Christ for the Next Generation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박재호 목사
브라질새소망교회 담임목사

교회헌금에 대해 바로 알고 행하라(2)

5. 헌금할 이유

- (1)하나님이 요구하셨다(신 16:10).
- (2)그리스도께서 지시하셨다(마 6:20-21).
- (3)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마 6:24). 재물을 하늘에 쌓지 않으면 재물의 노예가 된다.
- (4)성령이 감동하심(행 4:37) 신자는 성령이 헌금하라, 열마를 하라고 감동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행 5:1-3, 9).

6. 헌금의 용도

- (1)교회의 운영에 사용한다(대하 24:10). 성전 수리 및 교회의 운영 경비로 사용한다.
- (2)목회자 생활비와 후원금으로 사용한다(고전 9:14). 복음 사역자들의 생활비는 그 복음으로 인한 결과로 해결해야 한다(고전 9:7-11; 딤후 5:18; 딤후 2:6).
- (3)선교사역을 위해 사용한다(빌

4:16).

- (4)구제하기 위해 사용한다(신 14:28-29).

7. 헌금에 따르는 축복

- (1)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다(신 16:16).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진실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경청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후한 헌금도 드려야 한다.

(2)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다(말 3:10; 고후 9:8).

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후 9:7). 교회 생활을 하며 말로만 잘하고 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교인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후한 연보(고후 9:13)와 재물의 힘껏 봉헌(고후 8:1-3)은 주를 위한 헌신과 참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이다.

(3)범사에 복을 받는다(신 14:28).

(4)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잠 19:17; 눅 6:38).

(5)천국에 저축된다(마 6:20). 헌금은 썩어질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영원한 보물을 쌓는 것이다. 칼빈은 “은행을 믿으면 저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헌금하라”고

였다.

(6)하나님이 그 의를 기억하신다(고후 9:9).

(7)심은 대로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고후 9:6).

8. 헌금에 유의할 사항

- (1)약속한 헌금은 속히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자명한 예물, 서원한 헌금은 더디 바치면 죄가 된다(신 23:21-23).
- (2)처음 마음에 정한대로 드려야 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권고를 받고 얼마큼 헌금할 것을 마음에 정하고 발을 밟았다. 그러나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가까운 마음이 생겨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숨겨놓았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벌을 받았다(행 4:37, 5:1-10).
- (3)마음으로 드려야 한다(출 25:2). 헌금은 억지로 강요에 못이겨 인색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열납하신다(고후 9:7).
- (4)외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마 23:23). 헌금은 사람에게 보여 자랑하고 칭찬과 존경받기 위하여 해서는 안된다.

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썩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하였다.

재물이 썩었고 옷이 썩었다 함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금과 은은 녹슬고 장롱에 갇혀 있는 옷은 썩어 먹어 버린다는 뜻이다. 다른 번역에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약 5:3)를 “너희가 말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도다”로 되어 있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약한 축재를 함으로 말세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했다는 뜻이다.

9. 헌금의 종류

- (1)십일조(레 27:30; 눅 11:42)
- (2)주일헌금(고전 16:2)
- (3)감사헌금(시 136:1-26). 일상 생활에서 입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헌금이다(시 103:2-5). 예컨대 예배, 수찬, 세례, 성령, 폐업, 이사, 계약, 해약, 당침, 임직, 취임, 건강, 약혼, 결혼, 여행, 취직, 입학, 임원, 졸업, 퇴원, 순산, 합격, 승진, 준공, 입주, 개업, 생일, 은혼, 금혼, 유학, 당선, 소원성취 등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10. 십일조에 대한 바른 이해

(1)십일조의 정의
십일조는 단순한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창 14:20; 히 7:2,6). 십일조는 구원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다(레 27:30-40). 온전한 십일조는 생업과 물질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필수조건이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하였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 뿐이다. 즉 ‘십일조’와 ‘첫 열매’(첫 새끼)이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실 때 그 것들을 ‘나의 것’(출 13:2, 22:29; 레위기 26:30, 27:26; 겔 48:14)이라고 하셨다.

모든 소득의 열중에 하나, 모든 산물의 첫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이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 뜻은 인간의 삶,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하라는 뜻이다. 십일조는 임의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의무헌금이다. 십일조는 성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2)십일조의 유래
십일조는 아브라함이 전장에 이기고 그 전리품 중에서 십분의 일을 하나님의 제사장 샐렘왕 멜기세덱에게 바친 데서 시작되었다(창 14:20; 히 7:2,6). 그 후 야곱이 베델의 환상을 본 후 하나님께 십일조를 서약한 바 있고(창 28:22) 모세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 전체가 십일조를 드리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레위기 27:30-33; 민 18:21-22; 신 14:22-29).

(다음주에 계속)

헌금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차고 넘치는 복 받아 약속한 헌금은 속히 처음 정한대로 마음으로 드려야

www.gospelmall.com 미주 최대 인터넷 샵몰

- ▶ 5만 여권 이상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교회 모든 용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 **매주 2회 항공 직 수입**
- ▶ 신속하고 정확하게 핸들
- ▶ 현금처럼 적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인트 제도.
- ▶ Site에 올려지지 않은 서적 주문도 가능
- ▶ 구하기 힘든 서적도 최대한 구매 드림.
- E-mail : gospelmall@hotmail.com으로 출판사와 책제목을 보내주세요
- ▶ 사용시 질문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일반서적 용품
기독교에 관한 모든것

1.800.404.1171

교회도서부 설치전문 매주 2회씩 기독교
일반서적 항공 직수입

할렐루야백화점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로 바꾸시렵니까?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바이블
아울렛
(도매부)**



HOT SALE



NKR73TH 22,000원 \$17
NKR73H 18,000원 \$12

오.프.기.법.특.벌.세.일.한.정.판.매
대한기독교서회 성서원 미주총판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멀티프로젝터

Product	LIST	HM PRICE
2300 ANSI LUMENS 2000:1	\$1,095.00	\$699.99
2600 ANSI LUMENS 2200:1	\$1,295.00	\$899.99
3000 ANSI LUMENS 2000:1	\$1,795.00	\$1,199.99
3300 ANSI LUMENS 600:1	\$3,195.00	\$2,399.99
5200 ANSI LUMENS 1200:1	\$6,995.00	\$5,299.00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쟁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멀티프로젝터 샵프 밝기 2600 ANSI LUMENS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미가엘 반주기

영상 성경 찬양 연주기 미가엘
터치스크린 방식
영상프로그램 쉽게 뒤움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연주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학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전승기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세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조명
(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1. 빙하시대 이후(4) : 언어와 인종의 민족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집 밖에 나가면 서너 가지 다른 언어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

언어들 - 바벨탑 사건 때 주어진 것

세상 언어학자들은 사람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류의 조상은 뇌속에서는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말을 하는 기관인 목구멍 구조가 받쳐주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말을 할 수 있는 목구멍 구조를 갖도록 진화되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과 원숭이의 목구멍 구조가 다른 점에 착안한 설명이다. 언어의 기원에 대한 이런 세속적인 상상은 진화론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색한 설명일 것이다.

또, 세속 언어학자들은 전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이론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6900개가 있고 이것들을 어족에 따라 최대 90여 개의 언어 그룹이 된다. 그 이하로는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90개의 언어의 기원은 무엇일까? 과거 진화론을 맹신했을 때, 즉 인류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사건이 독립적으로 90번 이상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다른 언어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유전체지도(Human Genome Project) 등의 현대 생물학적 증거들과 통계적인 가능성(Nature 2004년 9월 30일자)은 현재의 인류는 한 조상에게서 왔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또 수천 개의 언어가 있지만 조상에게서 받은 것을 변형한 것일 뿐 언어를 창조해 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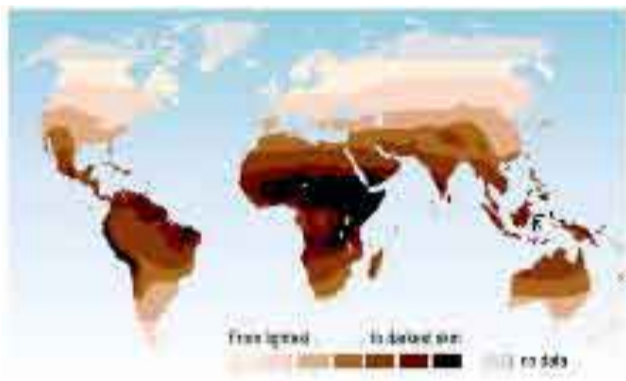
맨 처음 인류는 처음부터 문법적인 구조를 가진 완벽한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갑자기 서로 통할 수 없는 수십

가지의 언어가 생겨났다는 성경 기록이 논리적으로도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은 언어가 각 가족별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10:5);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10:20);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10:31).

바벨탑 사건이 있을 무렵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함, 셈, 야벳의 후손 족장들의 수를 세어 보면 70여 명이 된다. 이 족장들이 바벨에서 새로 갖

신 구대륙 낙타, 모습 크기 차이 불구 염색체 74개로 한 종류 교과서에 진화증거불충분 말 대신 낙타 삼입...되레 창조 지지



언어가 먼저 인종이 먼저?
언어는 피부색(인종), 민족, 나라의 기원

게 된 언어들이 지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조상 언어들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BC 2300년경 바벨 지역에서 전 인류가 함께 모여 한 언어를 가지고 살며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 등 문법적 구성을 뒤섞으셨을 뿐 아니라, 단어 자체의 음소들까지도 뒤섞으셨다. 언어를 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섞어 서로 전혀 통하지 않은 새로운 언어를 만드신 것이 새로운 언어들의 기원이다.

언어 - 인종과 민족과 나라의 기원

생물학적으로 인종은 단 하나 뿐이란 것에 거의 모든 생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인간유전체지도도과제 큰 역할을 하였다. 피부색 자체가 사람을 구분할만한 인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흔히 인종을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는데 사람의 피부색 색소인 멜라닌은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색소가 많으나 적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더구나 유전정보의 차이는 피부색(인종)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사람 간에 약 0.1% 정도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연히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다시 반복하거나 진화론적인 역사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현격하게 다른 피부색이 변이와 적응 과정을 통해 나타나려면 격리가 필수적인데 도대체 한 조상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격리가 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이번에도 역시 실제 역사인 바벨탑 사건을 빼면 답이 없다.

1930년대 이전 전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피부색 지도를 보면 적도 근처 사람들의 피부색은 검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밝은 색의 피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각 지역마다 피부색이 현격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이런 독특한 피부색이 생긴 지 그리 오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만약 독특한 피부색이 생겨났어도 수만 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웃 지역과 서로 피가 섞여 피부색의 경계가 흐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이전의 피부색 지도(그림)는 피부색이 갑자기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즉 약 4200년 전의 바벨탑 사건이 피부색(인종)의 기원이란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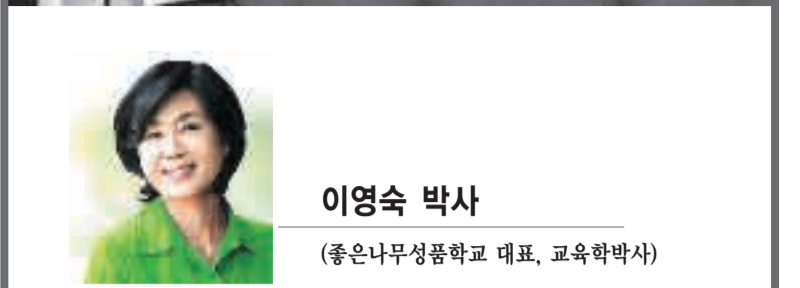
피부색(인종)과 더불어 바벨에서 주어진 새로운 언어는 초기 민족과 나라가 생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앞에 언급된 성경 구절들에서 보듯이 언어는 종족, 족속, 지방, 나라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인류가 찢어져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구별이 생겨난 것은 인류의 커다란 아픔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차별과 증오와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일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인 아픔과 고통이 함께 따라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지구와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와 범죄로 타락하기 시작했다. 창조세계의 질서가 고장이 난 것이다. 그 질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노동, 폭력, 살인, 그리고 죽음의 아픔이 생겨났다. 노아홍수 때는 물리적인 지구가 완전히 재편되어 더욱 나빠져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실상가상으로 바벨탑 사건과 빙하시대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괴시켰고 지구 환경은 더욱 나빠져 수명이 다시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인간관계 면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기에 적합한 세상이 아니었다. 구원자는 이런 이유로 오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성품칼럼 (17)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관계를 맺는 대화

몇 해 전 어느 방송국에서 행복한 대화법 특강을 마친 후의 일입니다. 전국에서 방송을 보신 분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가정에서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호소했습니다.

대구에 산다는 한 어머니는 사춘기 딸이와 겪고 있는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딸아이를 기대할 즈음 심한 시집살이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 결혼을 청산하고픈 마음이 굴뚝같은 시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첫딸을 출산했을 때 이 아이의 모습에서 시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본인을 힘들게 했던 시누이의 모습을 자신의 딸이에게서 낯마다 보고 산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일이라서 아이와는 눈을 맞추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 아이를 모질게 다루고 힘들어 했는데 아이가 사춘기가 된 요즘에는 딸아이가 엄마와는 눈을 마주치려 들지도 않고 말도 안하고 피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나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눈을 흘기며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는 딸아이가 어떻게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시도해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던 중 제 특강을 듣고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불행한 병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가끔 있습니다. 대화가 안되면 관계가 두절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결국은 이별이 따라옵니다. 깨어진 관계의 특징은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대화가 바로 성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품이란 그 사람의 생각, 마음, 행동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 소통하는 느낌들을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더 좋은 태도들을 배우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부모는 대화함으로써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보는 그 경험들이 모여 자녀의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성품 좋은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행복했습니다. 좋았던 추억들이 많았으며 좋은 대화로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서로의 대화가 막혀 있었습니다.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도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 맺는데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성품을 자라게 하는 비결은 자녀에게 더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더 좋은 감정으로 유지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게 하고 더 좋은 말과 행동들로 전환하며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는 성품을 가르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들려주는 모든 대화가 자녀의 성품이 되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가정 주변의 모든 말들을 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들이 되어 자녀에게 좋은 성품의 씨앗이 되어 자랄 수 있는 대화로 모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오후 8:00(영어)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홍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 유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오로천양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303)422-8950, Fax: (303)422-6943 7755 Kipping St., Arvada, CO 80005</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8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 엘 교회 담임목사 : 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 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대 회 령 언 부: 오후 8:00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영) 11시 유지,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35-4288,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 이영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 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jpccseattle.org</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 예배: 오후 7:30 금요 예배: 오후 8:00 새벽 예배: 오전 6:00 (월-토) Tel: (501) 920-9049 /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UEJUS.COM</p>	<p>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lamo,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목요 찬양: 저녁 8:00 www.jjc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루터교회 담임목사 :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 7시(금, 주일) 3264 Corporate Court, Elkton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영/일)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253)535-6207, 531-8424 www.hwchurch.org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수명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542-9515 www.hwchurch.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문)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 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Tel: (860) 643-4738 Fax: (860) 647-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하와이지역 담임목사 :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808)739-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창현 주일영양예배: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9-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2</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 김순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557-1778-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원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최창섭 목사, 남침례교한인교회 총회장 당선

제30차 정기총회, 제1부총회장에 김승호 목사

미주남침례교한인교회(KSBCA) 신임 총회장에 최창섭 목사(에벤에셀선교회 공동담임·사진)가 선출됐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텍사스 뉴송교회(담임 박인화 목사)에서 열린 제30차 정기총회 총회에서 최

창섭 목사는 단독후보로 출마해 회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총회장에 당선됐다. 부총회장은 김승호 목사(달라스산돌침례교회)와 반기열 목사(인디애나폴리스 한인침례교회)가 경선을 벌여 제 1 부총회장으로 김승호 목사가 선출됐다.

뉴욕교회 회장을 역임한 최목사는 총회장 당선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라며 “부족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가장 신실하고, 총회에서 맡은 바 직책을 다하는 총회장이 되겠다. 이 직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총회가 빛나는데 사용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지방회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 총회를 이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최창섭 목사 △부총회장 김승호 목사 △총무 임종우 목사 △서기 오인균 목사 △회계 김경도 목사 △감사 박종화 목사, 박진화 목사 (정리: 유원정 기자)

끌어갈 생각이나 많이 도와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총회는 “하나님의 영광을”이라는 주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목회자들의 만남 교제 그리고 각 조로 나누어진 세미나가 진행됐다. 오전 시간에는 주로 감사 보고 및 총회 업무보고, 재정보고, 협동선교비 보고 및 각 분과 보고 등이 있었으며 저녁에는 국내선교의 밤으로 이어져 축제분위기가운데 진행됐다.

본 총회는 미주 50개 주와 캐나다, 남미 등 850여 교회가 속해 있는 미주 최대의 한인총회로, 소수민족 중 히스패닉과 아프리카 아메리칸에 이어 3번째 규모이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최창섭 목사 △부총회장 김승호 목사 △총무 임종우 목사 △서기 오인균 목사 △회계 김경도 목사 △감사 박종화 목사, 박진화 목사 (정리: 유원정 기자)



가족수련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심을 얻으리라’

예성미주서부지방회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수련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서부지방회(회장 김윤택 목사)는 2011년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수련회를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심을 얻으리라’(마11:28)는 주제로 라스베가스에 소재한 선코스트 호텔에서 80여명의 목회자가족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평생교육에는 김만수 목사(고천성결교회), 김윤석 목사(좋은이웃교회), 윤규진 목사(대구신은교회), 조현우 목사(서안양교회)가 주 강사로 나섰다.

‘성결교회와 사회윤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선 조현우 목사는 “웨슬리의 영향으로 미국에서의 19세기 초기 성결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강한 열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결교회와 사중복음’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윤석 목사는 “성결교회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그 신학의 원천으로 하여 이를 웨슬리의 성경해석에 의한 근간교리와 만국성결운동을 통해 재 강조된 웨슬리의 구원론(중생과 성결의 도리)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졌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석 목사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감동의 시간이 된 것을 감사드리며, 그동안 힘들었던 목회 사역과 삶의 어려움들을 치유 받고, 새로운 영적 충전과 심을 얻는 시간이 된 것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제3회 글로벌다민족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각 민족 대표들이 기고하고 있다.

열방과 미국의 회복과 부흥 다짐

제3회 글로벌다민족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선언문 발표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회(대표 정윤명 목사, 월넛크릭GIM교회 담임) 주최 제 3회 올네이션스연합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시 85:6)의 주제로 지난 26일 오후 5시 북가주 베이 지역 미국 주류교회들을 포함한 30여 민족의 교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다짐하고 미국의 회복을 위한 10개 문항의 선언문이 발표됐다. 선언문은 아리조나 주의 투산 커버넌트교회 담임 Doug Stevens 목사가 발표했다.

밀피타스 리빙위드연합교회(담임 배상호 목사) 내 리빙위드크리스천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특히 이날 샌프란시스코 게이 퍼레이드와 겹쳐 그 의미를 더했다. 회복 선언문은 미국 교회와 사회, 정부의 영적각성, 캠퍼스 복음화 촉구와 함께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성적 질서문란으로 야기된 심각한 사회적 이슈 등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이번 올네이션스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미국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외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칸, 라틴 등의 배지지역 15개 민족이 각국이 직면한 심각한 기도이슈와 영적회복을 위한 영상 발표가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배상호 목사와 김성문 선교사(Holy Gate Mission)가 북한에 대해 강조하며 남북통

일을 위해 중보기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연사로는 David Millis(Japanese Evangelical Missionary Society) 선교사가 일본 쓰나미와 원전사고의 영상을 발표하면서 중보기도의 후원을 역설했다.

특히 국제전도자인 Almaz Tes-home 박사는 역대하7장14절을 인용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과 함께 진정하고 금식, 회개, 성결이 수반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여 깨어 일어나라”고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 민족의 목회자와 중보기도위원들의 여러 번의 뜨거운 환호가 있었다.

이번 열방찬양단에 이어 정윤명 목사의 개회인사와 배상호 목사(리빙위드연합교회 담임)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Abundant Christian Life Fellowship(담임 Wayne Jackson)교회 다민족 위임무용 찬양단의 “Hawaiian Praise”와 중국 교회 음악목사인 Rose Wun 목사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한국 교회에서는 “Joy of Yahweh Dance”(뉴비전교회)의 특별 위임댄스, 리빙위드연합교회와 실로암교회, All Nations가 찬양했다.

한편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 대표 정윤명 목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8월 21일(주) 제4회 글로벌다민족 콘서트, 10월 22일과 23일 중국교회인 산호세 River of Life Christian Church(담임 Tong Liu 목사)에서 제 7회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가 열린다고 광고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문인들과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회장 정지운목사(왼)

“백합화처럼 향내 내는 크리스천 문인”

‘크리스천문학 제 22집’ 출판기념회

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정지운 목사)는 ‘크리스천문학 제 22집’ 출판기념회를 30일 오후 만리장성에서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만찬을 통해 참석자들은 기쁨과 축하의 환담을 나누고 1부 예배, 2부 행사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는 조성우 목사(이사장) 사회, 박웅기 목사(사우스베이부도침례교회) 기도, 조진호 집사 특별찬양, 최희량 목사(한미전선연합회)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최희량 목사는 ‘가시나무가운데 백합화’(아2:1-2)란 제목으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진솔한 글들을 담아 22집을 완성한 모든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름답게 탄생된 크리스천문학 제 22집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백합화 같은 향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축

도는 박요한 목사가 맡았다.

2부로 이어진 기념행사에서 정지운 목사는 “여러 회원들의 협력에 감사한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을 통해 좋은 글들을 모아 내년에 더욱 아름다운 23집이 출판되길 바란다. 좋은 글들과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서평에는 최진호 목사, 목사 김병용 목사, 정해진 목사가 맡았으며 격려사는 차중성(이동문학협회장), 김복림(근우회장)이 전했다. 한편 이지원, 김순열, 김상분 회원의 시 낭송과 조진호집사와 새창조교회의 남성4중창의 축가는 문인들이 모인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이날 모든 행사는 참석자들이 ‘보리밭’(박화목 작사)을 함께 부르며 막을 내렸다. (이성자 기자)

어린이전도협, 새생활 성경캠프 개최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오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Rancho Ybarra 크리스천 캠프에서 새생활 성경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본 캠프는 어린이전도협회의 오랜 경험과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주는 새 생활 캠프이다.

본 캠프에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구원의 확신과 자녀됨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인도한다.

또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

는 마음과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하고 성장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적극 돕게 된다.

본 캠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즐거운 찬양과 율동, 재미있는 게임, 창작활동, 특별활동, 탐방준구, 놀면서 배우는 성경공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신나는 수영, QT, 은혜롭고 즐거운 Camp Fire, 마음의 문을 여는 Recreation, 영적 양식 요절암송, 찬양발표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50명. 7월10일까지 등록자에 한해 등록비는 180달러이다(이후엔 190달러). 자세한 것은 어린이전도협회 Tel. (213)382-1544, E-mail. cefkorean@yahoo.com 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미주갈멜산기도원 제2차 기도성회

미주갈멜산기도원의 제2차 기도성회가 지난 28일부터 7월7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성회는 조성근 목사(갈멜산 금식기도원장)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선포했다.

30일 저녁 열린 집회에서 삼상 21:10-15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조성근 목사는 “우리의 존재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불확실한

내일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목사는 “우리의 목적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일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도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3차 기도성회는 오는 9월 27일(화)부터 10월6일(목)까지 열린다. 연락처는 (213)514-0093, 393-3133이다. (박준호 기자)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h3>							<h4>기쁨과 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티리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9: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p> <p>Tel. (718)359-7883, 직통. (646)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ychurch@yahoo.com</p>
<h4>낙원장교회</h4> <p>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p> <p>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41-20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www.nakwonchurch.org</p>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p> <p>Tel. (718)464-2285, (718)359-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p>	<h4>뉴욕목양장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kyang.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30 토요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18)461-2810,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350</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6:00 영 아 예배: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순복음안도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461-7835 /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ck.org</p>	<h4>뉴욕중부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p> <p>website: nyjooongbo.org Tel. (718)999-8309,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h4>뉴욕효신장교회</h4> <p>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 이문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 예 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6부 EMBMEM: 오후 3:00 7부 노인예배: 저녁 7: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p> <p>Tel. (718)762-5756, 2525, Fax. (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금요기도회: (매월 1주, 3주) 8:00</p> <p>Tel. (201)310-0022(교당),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토요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롱아일랜드성결교회</h4> <p>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gospelway.org Tel. (516)333-1757 / 목사님: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h4>순복음 뉴욕교회</h4> <p>담임목사: 김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영상예배)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저녁 8:30 새벽기도회: 6:00(매월 1주)</p> <p>Tel. (718)321-7800, Fax. (718)321-9394 130-30 31Ave., Flushing, NY 11354</p>	<h4>어린이전도교회</h4> <p>담임목사: 김수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5:3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899-8309, Fax. (718)899-8433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월)예배: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 아 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p>	<h4>주신장교회</h4> <p>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8:20</p> <p>Tel. (718)710-7061, 7062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p>	<h4>중부뉴저지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00 영 아 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732)310-0022(교당),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장영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ccs.org</p>	<h4>퀸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시(1부)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2부) 목요찬양예배: 오후 1시 30분 NCF예배: 오후 1시 30분</p> <p>TEL. 718-67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sncc.org</p>	<h4>한마음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주일 3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 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hvnpak@gmail.com</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h4>	<h4>브라질 서우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9 Camburi S, Paulo Cep 01528-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 아 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사우마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340 PAULUS-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 5부예배: 오후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중야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5부흥회: 아침 7:40(매월) 유.중.고.대학부: 주일 오전 9:30</p> <p>TEL&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 신학교 교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부 스페니시 설교)</p> <p>Tel. (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p>	

동부교계 기사판



이상열 장로 찬양 간증집회

뉴욕해외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주최하는 에파도르 선교지 성전거주 위한 특별 연합 집회가 17일(주) 저녁 7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돌아온 땅" 주제로 전직 가수 이상열 장로 초청해 찬양과 간증 집회로 열리며 뉴욕교협, 뉴욕목사회, 미동부기아대책, 뉴욕전도협 등이 후원한다.

▲문의: (914)393-1450

코피아동동기 희망음악회

롱아일랜드 연합감리교회(담임 장재용 목사)가 7월 13일(주) 오후 7시 30분 코피아동동기 희망음악회를 갖는다. 한국의 희망 릴레이 콘서트의 주인공이자 피스뮤직 대표이며 한국의 500개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는 찬양시역자 강원명 전도사가 출연한다.

▲문의: (631)499-1260, www.likumc.org

뉴욕교협 임시총회 개최 않기로

김원기 회장, 헌법개정안 관련 "오해 분열 소지 없애려"

뉴욕교협이 7월 27일로 내정됐던 임시총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지난 30일 임원들과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 개정의 원활한 토의를 위해 정기총회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욕교협은 지난 27일 3차 실행위를 열고 여러 사안을 결의하고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헌법개정안 중 제 12장 선거 및 자격 제 2항 '현 부회장이 단독 회장후보가 됐을 시 투표

를 거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전임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며 3개월 안에 재선출 한다'(본지 제 1340호 10면 참조)는 안이 통과됨에 따른 문제발생의 소지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결정된 듯 보인다.

김원기 회장은 이메일에서 "37회기의 주력 사업의 하나가 헌법 개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목표 아래 꾸준히 작업을 해왔습니다. 차세대와 영광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오해 되고 있는 반응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9-9 할렙루아와 컨퍼런스도 성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필요 없는 오해나 분열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10월 정기 총회에서 실행하고자 합니다"라며 "정기 총회시 헌법 개정의 원활한 토의와 진행을 위해 이번 정기 총회는 일정을 오전 오후로 나눠 시간에 쫓기는 졸속 운영은 피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협 정기총회 일자는 10월 24일로 예정됐으며 선거법 세칙을 미리 배부해 9월 컨퍼런스(12-14일) 직후 실행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제 16차 카작스탄 파송기도회에서 김혜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순종하며 주만 의지하는 보리떡 돼라"

2011 카작스탄 파송기도회...제16차 130명

2011 카작스탄 파송기도회가 지난 1일 저녁 뉴욕총신교회(담임 김혜택 목사)에서 열렸다.

동 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김혜택 목사 인도로 진행됐다. 김혜택 목사는 "한 보리떡의 환상"(사7:9-14) 제목의 메시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순종하는 것처럼 금년이 카작스탄 16차 선교인대 침묵하며 음성 들으며 선교하라"며 "진지함으로 첫 번째 순종하는 보리떡, 부족해도 어떤 상황에도 어려워도 기도하며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비천한 보리떡 돼야 한다. 자기를 의지하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비천한 보리떡이 돼야 한다. 주님만을 아는 보리떡, 연약한 보리떡이 돼야 한다. 세 번째, 굴러가는 보리떡이 돼야 한다. 장풍 속에 금덩어리는 소용없다. 한 덩어리가 돼 굴러가는 한 보리떡의 환상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혜택 목사는 카작스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지의 정치적 상황으로 모든 교회가 문 닫게 됐지만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전략을 바꿔 선교사도 없는 가보지 않은 곳에 가게 된다"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만 믿고 간다"고 말했다.

이번 파송에는 130명의 단기선교

사가 30개 순으로 구성돼 36개 무슬림 마을에 들어간다. 2주 동안 전도를 하게 되는데 동 팀들은 지난 16년간 선교사 없는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전도해왔다.

이어 권순원 목사 인도로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목사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간구하라 △처음 들어가는 마을에 사탄의 방해가 사라지도록 △통역자 35명이 잘 조달되도록 등의 기도제목을 주며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돼야 한다. 선교사 몇 명 보낸다고 선교가 되지 않는다. 선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영적전쟁 심계명'을 선포하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들이 함께 외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단기선교팀을 성공시키는 성령의 법' 역시 복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파송기도회에 앞서 영락교회 청년찬양대의 공연이 있었다.

100여명의 대학생 청년들로 구성된 호산나 찬양대는 합창과 남성중창으로 찬양곡과 아리랑 개사 편곡, 찬송가 편곡 매들리 등을 불렀으며 기악연주단도 함께 연주했다.

(유원정 기자)



낙원장로교회에서 열린 전도부흥성회에서 김기남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성령충만으로 전도하는 능력 받으라!

낙원장로교회 전도부흥성회 강사 김기남 목사

뉴욕 낙원장로교회(담임 황영진 목사)가 지난 29일부터 나흘 간 전도부흥성회를 열었다. 강사는 뉴욕전도대학교 주최 전도세미나를 강의했던 김기남 목사(예심장로교회 담임)가 초청됐다.

담임 황영진 목사는 "이번 전도성회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며 지난 주부터 시작된 생생명축제의 연속으로, 전도로 목회를 성장시킨 김기남 목사의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예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남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며 성령 충만의 과정 즉, 부흥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능력전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첫날 사도행전 1장8절과 사무엘상 19장 18-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에 대해 전했다. 집회는 저녁 8시30분과 새벽 5시45분, 주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열렸다.

김기남 목사는 예심전도훈련원장과 총회신학연구원 실천신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원정 기자)



러시아천사합창단이 세계난민구호재단 주최로 뉴욕공연을 가졌다

러시아천사합창단 한국어로 찬양 세계난민구호재단 주최 뉴욕공연

러시아천사합창단(단장 김바울 선교사)이 세계난민구호재단(회장: 손영구 목사) 주최로 지난 2일 저녁 만국교회(담임 김희복 목사)에서 공연을 가졌다.

1991년 러시아 선교사인 김바울 목사에 의해 창립된 러시아천사합창단은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김바울 목사는 "단순한 음악발표회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천사합창단은 방문하는 나라의 말로 1년간 연습한다. 1부에서는 러시아 전통의상을 입고 한국어로 찬송가와 복음성가 등 불렀으며, 2부에서는 한복을 입고 한국 민요와 가곡 그리고 러시아 민요 등을 불렀다. 단원들은 한국어로 성경구절을 외워 교인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서노회 분립/뉴욕남노회 설립

5일 분립예배...KAPC 뉴욕일원에 4개 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강기봉 목사) 뉴욕서노회 분립예배가 총회주관으로 5일 오전 뉴저지 새생명교회(담임 국남주 목사)에서 열려 뉴욕남노회(가칭)가 분립됐다. 뉴욕서노회 분립은 지난 5월 열린 KAPC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분립 뉴욕남노회 교회명단은 뉴저지 새생명교회(국남주), 뉴욕중부교회(김재일), 뉴저지 가나안장로교회(박필성), 예수님의교회(이선용), 락크랜드 장로교회(김성민 교회), 후러싱장로교회(조상희), 뉴욕하나교회(권영국), 뉴욕사랑의교회(이재덕), 사랑장로교회(이요한), 기도운동교회(전현수) 등 11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또 미군군목 고흥석과 이춘우 목사, 파송선교사 방대식과 장현택 목사 등이 있다.

준비한 공전을 통해 발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국남주 목사 △부노회장 조성희 목사 △서기 김성민 목사 △부서기 이재덕 목사 △회록서기 전현수 목사 △부회록서기 이선용 목사 △회계 권영국 목사 △부회계 박필성 목사.

한편 뉴욕서노회(노회장 유한수 목사)는 14일(목) 뉴욕장로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분립 후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KAPC는 지난 2009년 뉴욕동노회가 뉴욕노회와 뉴욕동노회로 분립한 바 있다. 따라서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KAPC 소속 노회는 뉴욕동노회, 뉴욕노회, 뉴욕서노회, 뉴욕남노회 등 4개가 됐다.

분립예배는 인도 송상섭 목사(총회서기), 기도 공재남 목사(총회총무), 설교 김남수 목사(부총회장), 분립노회 호명 총회서기, 분립선포 부총회장, 축도 정인량 목사(임사부장)로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고향시립합창단 퀸즈장로교회 공연

미주를 순회 중인 고향시립합창단(지휘 이기선, 총신대음악과교수)이 지난 27일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에서 공연을 가졌다. 동 합창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 92회 전국체전 개최지 선정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24일 LA 공연을 시작으로 7박8일 동안 순회공연 했다.

이날 합창단은 '스윙로' '딤리버'

등 흑인영가와 '고향의 봄' '향수' 등 가곡, '주님의 세계' 등 찬송가 편곡 매들리의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였다.

한편 28일에는 맨해튼 마린 홀에서 뉴욕 한인들을 위해 공연했으며 맨해튼 거리 공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니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 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 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1년 8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1년 9월 18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출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서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7.7cm × 5.8cm		
출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시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남가주한인교회 여름성경학교 일제히 시작

6월 20일-7월말, 다양한 주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여름성경학교(VBS)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해 7월말까지 열리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그동안 하나 혹은 두 개의 주제로 열렸던 것과는 달리 'A Quest for the Lost Window', 'Faith Expedition', 'Jesus is the way', 'Meet with Jesus', 'Panda Mania'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믿음탐험'이란 주제와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을 이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VBS를 개최한 나성남포교회(담임 한성운 목사)는 찬양과 율동, 크래프트, 바이블스토리, 레크레이션,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본 교회 교육부 담당 김규현 목사



나성남포교회 어린이들이 VBS중에 기념촬영

“이번 VBS는 4개월 동안 중고등 부학생들과 EM학생과 함께 준비했다. VBS를 통해 아이들이 믿음탐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했으며 그 결과 믿음에 대해 알게 됐다. 부모와

아이들 함께 참여한 가운데 VBS가 은혜가운데 마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삶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있는 율항기목사

어린시절부터 목회자로... 신학교총장까지

나성동산교회 율항기 목사 간증찬양집회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는 율항기 목사(예음음악신학교 총장) 간증찬양집회를 1일 저녁 7시 30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율항기 목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부터 미8군에서 뮤지션으로 활동하던 이야기, 인기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절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예음음악신학교 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 나갔다.

율 목사는 “어린 시절 한국전쟁 등으로 폐허가 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당시 청계천에서 미군부대에서 나온 하루 한끼의 시래기국과 콩나물국 등으로 겨우 살아갔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것은 당시 미국의 도움이 토대가 되었기에 우린 미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청계천에 천막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드렸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수가 되게 하셨으며 77년 폐결핵말기 판정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을 되찾은 후 그는 가수의 길을 중단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됐으며, 20년전 예음신학대학을 세워 음악목사, 찬양사역자, 예배인도자를 배출하는 일에 힘쓰고

나성영락교회 전도 대상자 초청잔치

나성영락교회(담임 립형천 목사)는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제1차 아름다운 만남’ 행사를 17일(주) 오후 4시30분부터 8시까지 개최한다. 이날 1부 행사는 UCLA 한국음악과 후원으로 열리는 ‘박인수 교수와 음악 친구들 콘서트’로, 2부 순서는 태

신자 초청잔치로 각각 진행된다.

▲문의 (323)227-1400

오페라캘리포니아 소년소녀합창단 제27회 정기공연

오페라캘리포니아 소년소녀합창단 제27회 정기공연이 16일(토) 오후 7시30분 총현선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23)574-2747

좋은이웃청소년교회 26일 설립예배

좋은이웃청소년교회(Good Neighbor Youth Church, GNYC, 담임 손민호 목사)가 지난 26일 오후 4시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설립예배는 최한오 목사(나성성교회)가 대표기도를, 유규진 목사(대구신은교회)가 설교를,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가 권면을, 김만수 목사(고천성결교회)와 조현우 목사(서안양교회)가 축사를 했으며, 김윤석 목사(좋은이웃교회)가 축도했다.

인사말을 전한 손민호 목사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넓은 세상의 사회, 문화, 학문,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하여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하나님의 인재를 육성하는 목표를 두고 실천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이웃청소년교회는 청소년만 믿어오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뜨겁고 복음의 열정이 있는 누구라도 함께 모여서 절게 일하는 교회”라고 덧붙였다.

유규진 목사는 설교에서 “교회의 본연의 임무인 복음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길 바라며, GNYC가 젊은 교회만큼 큰 꿈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좋은이웃교회의 주소는 10458 Plainview Ave, Tujunga, CA이며 연락처는 (818)399-5300.

(정리: 박준호 기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친구야 친구’, ‘가는 세월’ 등 자신의 히트곡 등을 불렀으며 ‘나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등을 색소폰 연주와 함께 불렀다.

한편 율항기 목사는 미주리 주, 일리노이 주, 캔터키 주, 조지아 주, 플로리다 주 등 6개주를 순회하며 찬양간증집회를 가져왔으며 미드웨스트대학교 개교 25주년 축하연주회 및 집회 인도를 비롯 플로리다 잭슨빌장로교회, 템파 새빛교회, 아틀란타 우리교회 등에서 집회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좋은이웃청소년교회 설립예배를 마치고



남가주한인목사회 일일부흥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지난 22일 풍성한교회에서 일일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는 광주 빛과사랑의교회 리종기 목사가 초빙됐으며 함께 동행한 엘레오스 중창단의 찬양순서가 있었다. 이날 리 목사는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바울선생처럼 어려운 이민의 삶속에서도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사진: 집회를 마치고 목사협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빛과소금교회 이황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

빛과소금교회(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가 이황영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10일(주) 오후3시에 갖는다.

▲문의: (310)326-0300

아름다운교회 찬양과 경배의 밤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주제로 찬양과 경배의 밤을 7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8일 이종용 목사, 15일 이은수 목사, 22일 구현화 사모와 지명현 전도사, 29일 윤형주 장로 등이 출연한다.

▲문의: (626)810-3455, 4000

남가주사랑의교회 사랑장학회 장학생 모집

남가주사랑의교회 사랑장학회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5기 장학생을 모집 중에 있다. 분야는 한인 및 타인종 커뮤니티 학생, 미차립교회 목회자 자녀, 해외선교사 자녀, 해외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직인 신학생 등이다. 장학금은 1인당 2천 달러이며, 마감은 오는 30일. 선발결과는 7월 20일 발표되며 장학금 수여식은 8월 6일 열린다.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kdsf.sarang.com에서 얻을 수 있다.

▲문의: (714)822-7015



100일 특별기도 종료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은혜한인교회 100일 특별기도회 종료 감사예배

“부흥은 사람을 통해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지난 28일, 3월 21일부터 시작된 100일 특별기도회를 마치고 종료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한기홍 목사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합3:1-2)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신앙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다. 그런데 이 부흥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없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을 통하여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은혜한인교회 연합성가대는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동일한 시간에 세계기도센터에서도 기도하며 영적인 체험을 한 어린이들이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 정용수 목사(OC

교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100일 기도를 종료했다.

은혜한인교회는 100일 기도를 통해 성전이 기도로 채워진 것,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 자녀들까지 은혜를 체험하며 교육부에 기도불이 붙은 것, 성도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고민되는 기도제목들을 응답 받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된 것, 미국과 교회와 선교지에 큰 부흥의 역사를 더욱 기대하게 된 것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100일 기도 종료 감사예배 후에도 기도의 불이 식지 않도록 24시간 세계기도센터(World Prayer Center)에서는 매일 밤 8시 기도회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김항안목사의 시편영성산책



☆ 한기총 언론상 출판부문 선정도서 ☆

당신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고통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김항안 목사의 시편의 영성산책 ‘닮음’은 지금까지 시편에 관해서 나온 수많은 책들과는 달리 시편에 담겨있는 영성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주에서 영성하여 뿜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면서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졌는지를 시편의 거울로 조명해 본 책이다. 성경은 훌륭한 사람만 등장시키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도 등장한다. 성공한 사람만 등장하지도 않는다. 실패한 사람도 많이 등장한다.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

성공을 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성이 어떤 것인지, 실패를 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영성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시편이라는 현미경으로 시편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영성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될 것이며,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양약이요, 우리의 신앙을 견전하고 바르게 이끄는 영적 지침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쁨을 나누면서 슬픔을 나누면서...

김 항 안 목사(철학박사, 선교학박사)

목포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신학대학원, 독일 훔볼트대학 서울신학대학, 강남대학, 총회신학 아세아신학대학원, 총회신학대학원 출강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도서출판글로리아 대표, 목회신학연구원장

저서 : 복음적인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만들기, 크리스찬사랑교육법, 목회병법 등 80여권

www.kcdc.net 대표번호 1566-3004 FAX 824-4231~2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1동685



선교 단신

세계선교지도 제4판(2011년) 발행

이 지도는 기독교, 주종교 데이터를 포함하고, 개신교%로 10단계 색을 구분해 칠했다. 파란색 계통이 진해질수록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며 빨간색 계통이 진해질수록 미 복음화된 지역으로 구분했다. 또 각 국가에는 유럽, CIS,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로 구분해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한편 KCM 국가별 선교정보에 이 번호를 고유번호 데이터로 구분해 나가기로 했다. 지도에 표기하기 어려운 작은 지역은 주위 여백을 이용해 표시했다. 실제지도의 모양을 유지시키기 위해 하늘색으로 바다의 실제 크기를 표시했으며 주위 여백은 베이지색으로 표시했다. 또한 지리적인 지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각 국가의 수도와 주요 도시를 표기했다.

제 8회 목회자 자녀 워십훈련

R.P.K선교회(대표 예도해 목사)가 주최하는 제 8회 목회자 자녀 워십훈련(Worship Training)이 8월 2일(화)부터 5일(금)까지 3박4일 동안 대전 갈매산 기도원에서 열린다.

포이애마 2(우리는 하나님의 길잡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자녀들이 바쁜 학교생활 속에 쫓겨 영성이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 여름방학 기간에 Worship Training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비전과 목적을 찾는 목회자 자녀가 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

회비는 개인당 6만원, 참가인원은 100명이며 참가 대상은 중1학년년부터 고3학년이다.

등록신청은 rothempk@gmail.com(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교회주소)로 하며 강사는 김정동 목사(완도선교교회)와 전광민 목사(세광교회)가 맡는다.

자세한 문의는 010-4691-6565, 홈페이지 www.rpk.kr를 참조하면 된다.

중국 가정교회 신증인 세모산 목사 별세

중국 가정교회의 신증인 세모산(謝模善·사진) 목사가 지난 30일 고향인 장수(江蘇)성 양저우(揚州)에서 93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세 목사는 베이징 서우양(守陽)교회 김천명 목사의 목사안수를 직접 인도했고 지난 5월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 종교자유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낸 데도 앞장섰다.



1918년에 태어난 그는 14세 때 하나님을 믿은 뒤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다. 40년대 화북신학원을 졸업한 뒤 '진도회간(道道會刊)' 편집장을 지내다 55년 '성가오(聖歌·성스러운 기쁨)' 잡지 편집을 맡았다. 이 잡지는 훗날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기독교삼자회)의 공식 기관지 '토펡(天風)'이 됐다.

세 목사는 절친했던 기독교삼자회 초대 주석 우야오종(吳耀宗) 목사로부터 삼자회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

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거부하면 체포될 걸 알면서도 사양했던 것. 56년 5월 28일 밤 공안원들에게 끌려간 뒤 삼자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생활과 강제노동을 하다가 23년 만에 풀려났다.

그가 취조당하던 중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난감한 질문에 그는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기 원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린 시대요, 구원받을 때라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취조하던 요원이 그를 내동댕이쳤다. "내가 이 기회에 전도하느냐"며 억박질했다. 그는 침착하게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라고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대답 안 해도 좋습니까?"라고 맞받아쳤다. "내 몸은 이미 주께 바쳤으며 내 생명은 주의 제단에 올려져 산 제물이 되었기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손목엔 쇠갈고리가 쫓겼다.

그는 133일간 손목에 수갑을 졌다. 수갑이 너무 짜조여져 살갓을 뚫기까지 했다. 고문과 고통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후12:9)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 음성은 세 번이나 이어졌다. 세 목사는 다른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형기가 2년 연장되기도 했다. 그 기간 노동 개조로 약방 높은 창하이성 감옥에서 지냈다. 78년 형기가 공식 만료됐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20년 이상 형기를 채운 60세 이상은 출소할 수 있다는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명령이 있을 후에야 비로소 상하이에 있던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출옥한 뒤 또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80년대와 90년대 두 차례 체포돼 각각 3개월 구치소에서 지내야 했다. 외국 선교단체는 수차례 그에게 중국을 떠날 것을 종용했다. 그때마다 "누가 중국에서 이 일(복음전도)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답하곤 했다. 끝내 그의 아내는 미국으로 떠났고 결국 세 목사는 이혼을 해야 했다.

미 하나님의성회,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

미국에서 주류 개신교단들은 교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순절과 교단들은 지속적인 교세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순절파에서도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인 하나님의성회(AG)의 성장률은 미국 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하나님의성회가 최근 발표한 자체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작년 하나님의성회는 미국에서 4%의 성장률을 기록해, 교인 수가 총 3백만여명으로 늘었다. 또 공식 교인 수는 2.5%가 더 증가해, 현재는 약 1백75만명이 됐다.

미국 하나님의성회는 두 경우 모두 매년 약 1%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처럼 눈에 띄는 성장은 1983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교단 총무인 조지 우드 목사는 "지금은 우리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나님의성회는 20세기 초반 오순절파 운동의 영향으로 1914년에 미국에서 창립된 이래로 빠른 성장을 기록하며, 미국에서 가장 큰 20개 교단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우드 총무는 미국에서 하나님의성회가 갖게 된 영향력은 다양한 소수 인종들의 참여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하나님의성회 교인 가운데 소수 인종 출신은 타 교단보다 높은 수준인 38% 가량이 달한다.

한편 전 세계 하나님의성회 교인 수는 현재 6천3백만 명 가량이다.

브라질 동북부 베르남부고 선교여행기 (1)



"우리는 하나였다"

신속자 선교사

우리부부는 6월 13일 비행기를 타고 베르남 부고 헤시피 공항에 내렸다. 더위와 싸울 각오가 너무 컸던 탓인지 생각보다는 그리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 후덥지근한 남미의 열기가 오히려 싱겁기까지 했다.

베네스타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스 콘셀로스 목사가 시무하는 헤시피(Recife) 이베세피(IIPEP) 교회건축을 마친지 6개월 만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10년 11월에 시작한 같은 지역에 베울리스타(Paulista) 교회건축이 완공되었고 6월 18일 헌당예배를 앞두고 있었다. 유난하게도 건축허가를 받아내지 못했던 15개월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것은 지금까지 건축한 현지인 신학교와 타아소를 포함해서 23개의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없었음이다.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던 하나님을 향해서 혹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가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흔들렸던 불만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기다리는 동안 한번도 흔들림 없이 꼭 허가가 나올 것이라면서 길이 참아 기도하던 남편 김우선 목사가 미련해 보이기까지 했던 나는 늘 "조급한자를 보았느냐 오히려 미련한자에게 바랄 것이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며 마음에 달고 살았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웠던 몸부림이었음을 다시 한번 새겨 본다.

하나님은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자를 오늘도 기다리시지만 왜 우리는 쉽게 조급하므로 부끄럽게도 믿음이 연약함을 자랑 하는지... 고하고 애쓰며 행어나 건축을 포기하면 어쩔까 노심조사를 했을 베울리스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단파스 자카리아스(Dantas Zacarias) 목사부부의 승리의 미소 속에 숨어있는 아픔까지도 볼 수 있는 만남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주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선교에 헌신을 다하는 한국의 예능교회가 일곱 번째 지은 교회여서 조건희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세 교회를 더 건축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다.

마무리 작업에 여념이 없는 교회는 노란 색의 밝은 미소를 띠우고 도로에서부터 올라다보는 우리를 맞이하는 듯 했다. 새로 지어진 교회! 우여곡절을 이겨낸 자카리아스 담임목사 부부의 남다른 감회는 그들의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지 연상 삼글병글 거린다.

봉헌을 며칠 앞두고 오늘은 몇 장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만족하고 봉헌일이 되기까지의 며칠을 그곳에서 보낼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야 했다. 같은 날

저녁 8시 사막지대와 같은 빠토스(Patos)로 가는 버스를 타기위해 반시간 이상을 달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움에 그림자가 드리운 뒤였다. 무더위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60년대 이민가방에 터질듯이 가득채운 어린이옷들이 담긴 두 개의 가방과 손가방 두 개, 합 모두 4개의 가방무게가 장난이 아니어서 이곳저곳으로 운반할 때마다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몸이 쓰러질 것 같아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서 손과 발, 온 몸이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면 좀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힘이 들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젊음이 달아나 버린 세월을 누가 닦아주면 팔심을 바라보는 달려온 세월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마는 주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교의 길이기엔 옷을 입고

기빠할 복부의 어린이들의 모습이며, 또한 그들을 보며 기빠할 주님의 얼굴이 우리 부부에게는 놀라운 힘이 되었기에 장장 8시간의 버스길을 달려 새벽 4시 반에야 빠토스 터미널에 도착 할 수가 있었다. 오고 가는 이틀 밤의 속박비를 대신해주는 밤 버스가 고맙기까지 했고 떠나기 전 터미널에서 뜨거운 물을 얻어 부은 컵라면 국물에 쌀밥 한끼까지 넣어 배불리 먹어두었던 터에 든든하기까지 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빠토스의 구두쇠 일인자라는 별명의 "제킨나"(Jaquinha) 장로님이 자신의 집에 친척마저도 못맞춤 묵어갈 수 없게 했다더니 현지 다비(Davi) 목사의 오토바이를 사 주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로님의 놀라운 변화는 우리 부부의 경이로운 기쁨이었다. 주님이 먼저 주시지만 하면 누가 변하지 않겠나 버티겠는가?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는 마음이었다. 역시 새벽에 차를 몰고 나와 뜨거운 포옹으로 우리 부부를 맞이해준 방은 제킨노 장로님이었다. 우리 부부가 사용할 방에는 에어컨까지 달려놓았다며 삼글병글거리는 것이 주님이 먼저주신 표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서 드디어 건축 후 이곳 사막지대 같은 무더운 빠토스 브라질 현지인 신학교에도 23명의 신학생들을 보내주셨다.

마지막 때에 복음의 일꾼들이 모여든 이 기쁜 소식에 이어 에어컨 설치를 부탁한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린 것은 물론이고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지 않는가? 두어 시간 거리에 휘발유 값도 안되는 100헤이스씩을 받고 교회들을 담임하면서 일주일에도 세 번씩 오가며 신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한 밤에 돌아가는 교수 목사님들의 수고와 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음호에 계속)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 교회안내)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orea, USA, and South America.

'나는 선교사다' ... 선교동역자의 삶 회복 기회

30일 사랑의빛선교교회 선교사를 위한 음악회 개최

파사데나 소재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최혁 목사)가 7월 30일(토) 오후 5시 선교사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의 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음악회는 사역 현장에서 지친 선교사들과 목회자를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선교단체 스태프들에게도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고.

사랑의빛선교교회는 음악회에 앞서 7월 한 달을 선교축제의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선교를 위한 달로 지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사랑의빛선교교회는 약 60여개의 미전도 국가를 각 구역별로 입양해 그 나라들을 알리며 미전도 종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 동역자로서의 선교사적 삶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선교 축제기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빛선교교회는 "이 기간을 통해 성도들이 영혼사망의 마음을 깨닫고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를 통해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을 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귀띔한다.

선교 축제기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빛선교교회는 "이 기간을 통해 성도들이 영혼사망의 마음을 깨닫고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를 통해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을 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귀띔한다.

이날 행사는 4시 40분경부터 시작하는 '먹거리 장터'를 통해 식사가 제공된다. 먹거리 장터는 성도들이 정성을 담아 갖가지 음식을 준비해 풍성한 식사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교제의 시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성가곡과 제즈, 중창단들

이들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각 선교단체를 통해 소속된 선교사들의 정보를 제공받아 각 선교사들에게 초청장을 배부할 예정"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랑의빛선교교회는 1992년 김재문 목사가 10여명의 성도들과 개척해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부흥 발전해왔으며 현재 2대 목사인 최혁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다음세대의 사랑을 이 땅에서 증명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헌신을 다해 사역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www.lightoflove.us에서 볼 수 있으며 (626)744-9191/(213)221-58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영엔젤스 합창단 20회 정기 연주회 모습

인터뷰



이진도 장로(BIC Mission 이사장)

비즈니스를 파송하는 BIC 미션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기독교 기업, 왜 성공해야 하는가?

"교회에선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우리 비즈니스를 파송합니다. 비즈니스가 바로 선교로 연결되니까요"



대 속에서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사업의 멘토가 되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 현재에 이르러까지의 산경험들을 진솔하게 들려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왜 성공해야 하는지의 진정한 목적을 일깨워 주게 된다.

7월 7일부터 28일까지 복음방송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비즈니스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BIC Mission 선교회 이사장 이진도 장로가 한마디로 표현한 BIC Mission의 사역이다.

'충격의 파도를 일으키는 비즈니스 세미나'라고 부제를 달고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중층에 있던 재정 세미나와는 조금 판도가 다르다.

이 선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이번 세미나 강사들도 현재 이 민사회의 사업가들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늘 성공만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사업가들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불경기를 맞고 있는 현재

영엔젤스 합창단 정기연주회 창단21주년 기념

영엔젤스 합창단(지휘 박세연)은 창단21주년 기념 제20회 정기연주회를 지난 1일 오후 7시 월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When I Lay Me Down To Sleep',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눈꽃송이', '날마다', 'I will Follow Him' 등을 불러 여름날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한편 이날 연주회에는 LA남성선교 합창단(지휘 원영진)과 Strada Trio

가 찬조 출연했다. (박준호 기자)

'한사람이 한영혼을 주님께로' 한빛성결교회 찬양축제

웨스트코비나에 위치한 한빛성결교회(담임 차광일 목사)에서는 '한사람이 한영혼을 주님께로'라는 주제로 지난달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찬양축제를 가졌다. 올해로 4번째 맞이하는 찬양축제는 소리의엘의 지명된 전도와사 KAM Coral 합창단의 찬양이 있었다. 또한

BIC Mission의 뿌리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엔 C국 선교사 단체를 통해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이 모임에서 한분의 전도사를 동아시아 C국으로 파송했고 그는 그곳에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사역자와 함께 BIC Mission 임원들은 힘을 모아 C국을 함께 오가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이 분이 목사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하자 또 다른 선교사가 배턴을 이어 사역을 했었지만 다른 선교단체로 이적함에 따라 사실상 사역이 중단되는 상황을 겪게 됐다.

그러나 비즈니스 선교의 중요성을 펼쳐버리지 못한 송원준 목사, 임철호 장로, 이진도 장로, 전일정 집사는 1년 전부터 이 사역의 재기를 위해 매주 아침 6시30분에 기도회를 갖고 새로운 발족을 시도했다.

이때 선교회 명칭을 현재의 BIC Mission으로 새롭게 명하고 1년을 준비한 후 첫 사역으로 금번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이 선교회는 '크리스천비즈니스 오너들이 각자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게 함으로 그것이 곧 주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자'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BIC Mission을 소개하는 이진도 장로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영적인 면을 터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만 사실 비즈니스 면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

하는 현실이잖아요? 이민교회가 다 채우지 못하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경험했던 비즈니스 노하우를 통해서 멘토가 되어주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 방면으로 카운슬링을 해주며 주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기업이 되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이슬람 지역 같은 곳에는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취업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선교사들이 있지만 우리 선교회에서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지로 들어가려는 것이지요. 비즈니스 교육은 물론 물질적인 지원도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기에 금번 세미나에는 사업을 하는 분이나 사업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와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BIC Mission의 대표 송원준 목사는 비즈니스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15년 동안 목회를 해오던 송 목사는 비즈니스 선교의 꿈을 안고 카운슬링컴퍼니에서 재정카운슬링을 담당하며 비즈니스 선교사로 자리매김했다. 부대표 임철호 장로 역시 어려운 고난을 뚫고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우뚝 서 있으며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고 있는 총무 전일정 집사도 의류업계에서 성공자로 꼽히고 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문의로 (213)446-4841/(323)496-197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25일 주일예배시간에는 본 교회 교인 한사람 한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고 전도대상자를 불려오는 특별한 순서를 가져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사

람하며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마음들을 갖는 시간이 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찬양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형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예배: 오후 12:55
---	--	--	---	---	--	---

다우니제일교회 담임목사: 황철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목욕부흥회: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예배: 저녁 8:00	동문교회 담임목사: 고현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목요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선교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받은 신자들이나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el: (213)210-6890 / Fax: (323)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기도과 상담: 화목 오전 10시부터 -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만남의교회 담임목사: 박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중요부흥회: 오전 10:30 찬양예배(영양): 오전 1:00 EM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	---	--	--	--	--	--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병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15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방주선교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4: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청. 장년영양예배: 오전 7:30 오전 11:3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2:30(영양) 금요예배: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25 영양예배: 오후 1:30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8:00 목요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김재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9:00 목요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 금)
---	---	---	--	---	--	--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정병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김병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운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목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교우찬양예배: 오전 11:0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목요예배: 오후 7:30 목요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웬스톤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	--	---	---	--	--	--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2)



세대간 교육 / 사역 이슈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친구들의 유스 그룹 졸업이후 신앙적 퇴행(Retention after graduation)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졸업 이후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퇴행되어가는 친구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 우리 교회들이 모두 함께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그들을 향한 현실적인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처해야 함을, 그리고 이러한 기본과 전제 아래 구체적인 방안들을 창안하고 실행해야 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신앙적 퇴행이라는 급박한 이슈에 대해 우리 교회들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

이나 집사님들께서 상기한 여러 통신망을 이용해서 졸업한 자교회 친구들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소속감을 통해 대학에 있는 동안 심적 영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방학동안 모 교회에 돌아와서도 흑여느끼지도 모르는 이질감이나 어색함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진학하는 대학 주변의 교회들과 미리 연계를 시켜주거나 새로이 설립 교회 선택에 대한 조언 및 추천을 해주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낯선 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는 일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는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만나지 못해서 신앙적인 퇴행을 겪게

공동체가 우리 친구들을 돌보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서 퇴행이 아닌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 교회들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들은 자교회 졸업생들을 향한 사역 뿐 아니라 우리 교회들 사정권 안에 들어온 대학생 친구들에 대한 진심어린 환대와 적절한 사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적 퇴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진심으로 환영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사귀고 돌보고 보살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서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침단기기 통한 애정과 관심으로 신앙지도 및 상담 계속 섬길 교회 추천으로 신앙생활 연속성 잃지 않도록 사역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적인 사역 방안들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제안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일선 사역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빛나는 창조성으로 얼마든지 더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들을 일구어 내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구체적인 방안 그 첫 번째는 이미 졸업해서 대학생이 된 자교회 출신의 친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베풀고 신앙지도 및 상담을 해나가는 일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실천 가능한 방안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도 말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나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셀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으나 만약 없더라도 괜찮습니다(여력이 없는 교회들이 더 많겠지요). 유스 사역자나 이나—개인적으로는 직전까지 이들을 섬겼던 유스 사역자들이 가장 적격일 듯 싶습니다— 담임목사님들이나 혹은 교육부 담당 장로님들

되거나 혹은 가속되거나 혹은 회복이 더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친구들이 신앙적 퇴행의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앙공동체에서 단단히 뿌리내리고 든든히 서야하는데 사실 새로이 섬길 교회를 찾고 적응하는 과정이 우리 친구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두렵고 외롭고 당당한 문제들이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 고도의 분별력이 요구되는 선택상황인 새로이 섬길 교회를 찾는 일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더하는 것일 테지요.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이 진학하는 학교의 교회들에 미리 연계하여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인사를 수배하는 한편 우리 친구들이 그 교회들의 담임 사역자들 또한 담임목사님들과 충분한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하는 교회들을 반드시 복수로 하여서 친구들로 하여금 스스로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새로운 신앙

다해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네 교회 내 교회 따지는 일이 얼마나 유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롭게 힘겹게 새동지에서 든든히 서고자 애쓰는 그들을 위해 매우 맛있는 한국 음식도 대접하고 또 간간히 집으로 초대하여 섬기고 일상적인 대화와 심도 깊은 상담도 충분히 하고 또 소그룹모임이나 성경공부도 제공하고 그들이 준비가 되어있고 또 자원한다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거나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는 봉사의 기회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는 그들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나 실상 궁극적으로는 본교회를 자체를 더욱 더 생동감 있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들 간의 졸업한 우리 15세 친구들을 향한 사역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앞서의 두 번째 세 번째의 방안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자교회 중심주의나 개교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이삭의 묵상 (창24:61-67) 찬446장

이삭 생애 속에 보여주는 것은 은유의 자화상입니다. 어떻게 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나? 첫째, 언약순종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62). 이삭은 언약에 집중해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지 않고 겸손히 산 것은 언약에 순종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소중성을 구전을 통해 전수받아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을 구하는 꿈을 품고 나갔습니다. 둘째, 기도의 끈기를 찾아야 합니다(63).

우리의 목표는 이상주의가 아니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했습니다(마6:6). 교회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딤후2:2). 셋째, 가정생활에 성실해야 합니다(67). 이삭은 사라의 죽음으로 슬퍼했으나 결혼을 통해 위로 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할 사람은 자기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화 영원한 기업 (창25:27-34) 찬492장

성경이 에서와 야곱 생애를 언급한 이유는 구속의 기업에 관한 바른 선택을 가르치려는데 있습니다. 첫째, 구속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31). 외형적인 가문, 은사 그리고 방법은 대소사이나 기업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에서는 믿음을 경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갈망했습니다. 둘째, 기업에 대한 망령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32-33). 잠시 배고픔을 참지 못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을 팔았습니다. 이는 습관적 행동을 가리키며(히12:16-17) 욕을 쫓는 행동입니다. 셋째, 구원의 기업을 즐겨야 합니다. 기업을 사모함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된 마음입니다. 그것은 야곱 생애의 특징을 이뤘습니다. 야곱과 동질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주신 그리고그도안의 풍성한 기업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을 알고 주장합니다.

수 베델의 하나님 (창28:10-22) 찬364장

구원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결과가 같습니다. 야곱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12).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 위에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다리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보인 것입니다. 둘째, 언약을 확증했습니다(13-15).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먼저 하신 언약에 복의 대상으로 "너와 네 후손"이라는 말이

더해졌습니다. 계시의 발전입니다. 셋째, 서원했습니다(20-22). 세 가지 서원은 주종관계를 분명히 한 언약의 본질을 보인 것입니다. 그 계시를 접한 야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 분명해졌고 예배 중심한 삶과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권자라는 신앙이 확실해졌습니다. 야곱의 베델체험은 모든 신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신비한 체험입니다.

목 주께 감사하라 (시106:1-12) 찬378장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케 함으로 감사를 배우게 하는 본문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약하십니까? 첫째, 그의 선과 인자 때문입니다(1). 하나님의 형상인 선과 인자는 자기 백성의 결음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둘은 인자와 진실로, 선과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표현됐습니다. 만물과 역사에 나타난 그의 사랑이 바로 매일 먹는 성도의 양식입니다. 그럴 때 시인처럼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고민 많은 세상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4).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같이 넓고 깊으며, 하늘 같이 크고 높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 혜택이 선물이고 특히 죄와 죄책과 육의 세력에서 건진 받음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의 바다로 뛰어 듭니다.

금 주께 회개하라 (시106:13-48) 찬337장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본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나 곧 배은망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첫째, 흥해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을 주저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교회의 참 구원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보인 것입니다(47-48). 그리스도의 부활로 신자는 그 기이한 구원에 들어와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둘째, 기적 속에 살았으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혼이 쇠약했습니다(15). 의식주를 모두 기적으로 허락하셨으나 감격뿐이지 난관이 오면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행하신 분과의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모든 착한 일에 모든 것이 항상 충만케 하시는 주께 겸손히 항복하며 간구합니다.

토 인자와 선의 입맞춤 (시107:1-22) 찬460장

심령기를 배경한 시편 5권 중 첫 시편은 모압 평원에 있는 광야 세대에게 모세가 전한 가르침입니다. 첫째,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봅니다(1). 성경에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실 그리고 의와 공의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선으로 자기 백성을 간섭하신 것입니다. 둘째, 고통을 통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2). 신

적 성품을 나타내심이 자기 백성에게 겸손의 형상을 새기는 일입니다. 특히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여 겸손으로 나가게 하여 자아부인을 배우게 하십니다(눅 9:23). 고난을 당할 때 자아의 껍질이 파쇄될 때 겸손과 은유의 향유가 흘러나옵니다. 성령은 그 속에서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으시기 때문입니다.

큰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확장에 대한 소명을 순수한 신앙으로 통감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마음만 모은다면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실 이는 꼭 한인교회들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으며 미국 교회나 다문화 교회와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캠퍼스 사역을 시행하는 교회들과 이를 담당하는 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기독교로 개종 이만 목사 사형선고 무효화

이란 대법원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세프 나다르카니(32·사진) 목사에게 내린 사형 선고를 무효화했다.

3일 나다르카니 목사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란 대법원은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개종을 포기한다는 조건 아래 사건을 라다르카니 목사의 고향인 라슈트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19세에 개종한 이후 소규모 복음주의 단체 '이란 교회'(Church of Iran)의 목사로 활동

해 오다 2009년 당국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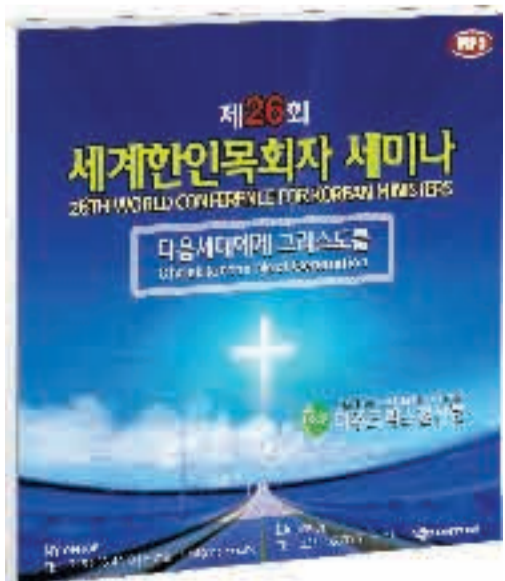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따르는 샤리아법은 이교도의 신앙을 인정하지만 이슬람교도의 배교행위는 극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나다르카니 목사의 변호사인 모하메드 알리 다카 역시 같은 날 테헤란 법원에서 "이슬람에 반하는 행동과 선전을 했다"는 이유로 9년형과 변호사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다카 변호사는 "그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가 이끄는 인권수호자센터에 협조하고 외국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고 비난받아왔다"고 말했다.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받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연선된 17강(목회자, 평신도 각각)과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걸, 이영선, 김만형, 김상덕, 조일구, 홍민기, 송규식, 김해전,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본사방문 오직환/조선인 선교사(아프리카 말라위)

말라위 홍보와 후원의 손길 기대하며 대륙횡단!

2010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렸던 '제25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해 아프리카 말라위에 관해 소개했던 오직환/조선인 선교사부부가 안식년을 맞아 미국체류 중 28일 본사를 방문했다. 많은 이들의 귀에 생소한 지역이기도 한 말라위(Malawi). 세미나를 마치고 본지를 통해 오직환 선교사 인터뷰기사가 나간 후 많은 이들이 말라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오기도 했던 말라위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그지없고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안식년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느낄수록 두 선교사의 마음은 말라위로 달려가곤 했다. 그들에겐 책이 필요하고, 그들에겐 의약품도 필요했다. 이곳에선 넘쳐나는 풍부한 물자들이 그곳 말라위에선 더없이 필요한 것들이기에 이곳에 머무는 동안 가슴앓이하며 이를 보다 못해 결국 그들은 미국 대륙횡단 여행을 결정했다.

7월 2일 파사데나를 출발해



오직환 선교사 부부

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떠납니다"라며 독자들에게 미주지역 온 성도들에게 기도를 당부

리하여, 결핵으로 생명을 잃고 있으며, 말라위는 매일 각종 질병으로 200여명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정이 붕괴

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교육 열이 대단히 높은 나라로서 각 분야에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참여하여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종 전문분야에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 영어 사용이 가능한 분들은 말라위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다고 한다.

말라위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보다 조금 큰 118,484km²이고 인구는 약 1천5백만 명이며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아름다운 호수가 전체 나라 면적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다.

말라위 GDP는 313달러로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중의 하나이다. 전문직이 260명이고 간호사는 7,264명으로서 WHO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전문직의 가장 부족한 나라이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말라위 인구의 14%가 에이즈로 고통 받고

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교육 열이 대단히 높은 나라로서 각 분야에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참여하여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종 전문분야에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 영어 사용이 가능한 분들은 말라위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다고 한다.

△변화의 움직임=민주주의 정치체도로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현재 정부와 국민들 전체가 무엇인가 해보려는 몸부림이 있다. 대표적인 행동을 하나 소개하면 지난 2010년 초에 말라위 정부가 국민의회개혁의 차원에서 말라위 국기를 변경했다. 변경 전의 국기는 호수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에서 이제는 완전히 태양이 떠올라 호수가 아닌 하늘에서 말라위를 비추는 그림으로 변경됐는데 그 의미는 국민 의식개혁의 하나로서 스스로 해보려는 몸부림의 시작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라 전체에 확산되

공용어 영어, 높은 교육열, 자립 몸부림...가능성 많아 은퇴전문인 등 미주한인 손길 절실히 필요

워싱턴DC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행이다. 이번 여행길에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Africa Child Mission(대표: 오직환 선교사)을 통해서 미주 한인교회에서 한 가정의 말라위 아동 1명씩 아동결연을 해줘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는데 미주 한인교회가 큰 밑거름이 돼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여행 중 경유하는 지역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수요예배 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프리카 당면 문제와 말라위 선교사역을 소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수집한 컨테이너 하나 분량의 도서를 옮기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들은 대륙을 향해 출발한다.

본지를 방문한 오 선교사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허리 질병이 있어 장기간 앓아 있

했다. 오직환 선교사는 현 아프리카의 당면문제에 대해 "빈곤의 종말"(저자 제프리 삭스)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아프리카 선교의 긴급성을 전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생명을 대해 품고 있는 경건함을 조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면 그런 무고한 죽음이 아프리카에서 날마다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인의 생명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똑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먼저 나가는 불을 끄기 위해 하루빨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날마다 1만5천명의 사람들이 AIDS와 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이며 위기입니다. 이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 역사에 기록될 내용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누구였으며, 무엇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말라위(Malawi)를 소개하면 아프리카에 동남부에 위치한 가운데 내륙국가로서 동쪽으로는 모잠비크, 서쪽으로는 잠비아, 북쪽으로는 탄자니아, 서쪽으로는 짐바브웨가 있다. 1891년부터 1964년까지 약 73년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이고, 부족어로서는 호수의 언어라는 별명을 가진 치체와(Chichewa)가 사용하고 있다. 말라위는 1964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할 때 주변 나라들이 친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남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말라위는

있다. 에이즈와 말라리아로 매일 200여명이 죽고 있는 가운데 말라위 평균연령도 39세이며 고아들이 날마다 증가하면서 가정의 붕괴와 가난이 악순환 되고 있다. 또한 말라위 인산부 100,000명 중 1,100명이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 사망하며(한국 14명, 북한 370명), 그리고 어린이는 1,000명의 아동 중 110명이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한국 5명, 북한 55명). 이번 미주 대륙횡단여행을 통해서 오직환, 조선인 선교사가 바라는 것은 미주 한인교회가 아프리카의 당면 문제와 말라위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역에 관심 있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구축=말라위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10가정)과 외국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 NGO 간의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 또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활동 경험 있는 분들이 말라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헌신한다면 말라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오직환 선교사 연락처: (626)399-4715, zamcef@gmail.com (이성자 기자)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팔짱 휘다기도 얼마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수긍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물결이 이렇게 거셉니다.

자기애

오늘 또 하나의 물결은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narcissism)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모든 삶의 초점이 두 가지에 맞추어져 살게 됩니다.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매사를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초점이고 내가 중심입니다. 또 하나는 욕망입니다. 내 안에는 아주 강한 욕망의 덩어리가 들어 있어 나를 무섭게 지배합니다. 나로 욕망을 내게 하고 탐욕을 부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게 하고 더 올라가려 안간 힘을 다 쓰게 하고 그러다 넘어지게 하고 탈선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은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게 합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유행에 몰두하게 하고 세상 물결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말씀에서 세 가지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자의 삶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이 일이 내게 합당한가가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판단이고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두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이 된다 해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미성숙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내안에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진정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나는 물질의 흥수, 문화의 흥수, 유행의 흥수의 물결에서 헤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 물음도 없고 생각도 없이 정신을 잃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 가려면 이 정도의 용기와 각오와 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오늘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써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입니다.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암초, 불량률-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 나성 복부 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웰로십 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달라스 한인 장로 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문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몬트레이 베델한인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델 한인교회, 베버리 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샌디에고 아름다운교회, 성림한인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시온연합감리교회, 아버지마음교회, 아름다운교회, 일반인 침례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예수교교회, 은혜평안교회, 은혜한인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이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교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하버 성산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AT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mC, ITMC, PGM, ENJOY&TV, HKM, SILK WAVE MISSION, ThatsMEonTV.com, KBS, MBC 등 항상 성원해주신 많은 교회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치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을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을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률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마진 없는 출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료배달: 남가주 전역(\$45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타주 주문시 면세)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집회/부흥회/행사/시리즈 설교 등을 원본만 보내 주시면 편집, 제작, 복제, 포지 디자인에서 패키징까지 할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제작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설교, 찬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량에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단가 \$2,695 (회원 특별할인: 전화 문의 요망)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셔서 매월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백 만능 해결사-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봉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안성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 시 40-45장/hr.
- 효율적 개별 인크 절약기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il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십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스펙터가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경쟁기준 중 가장 빠른속도, 가장 낮은 에러율 및 고장율의 ILY Enterprise사 제품
- 캘리포니아 현지생산
- 확실한 품질보증
- 신속한 A/S 및 최상의 조건
설교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